

NFT의 진화와 미래

한종목 chongmok.han@miraeeasset.com

NFT 진화의 조짐

• 2021년 NFT = 희소성에 기반

- 2021년은 NFT 버블시대. 실용적인 사용가치에 기반한 것이 아닌 그야말로 ‘희소성에 기반한 디지털 아트’ 정도에 불과했었음. 현재는 거래금액 자체가 상당한 침체기를 겪으면서 희소성만으로는 NFT의 밸류에이션을 지탱하기는 어렵게 됨

• 크립토펙크보다 BAYC가 더 비싼 이유

- BAYC의 개발사 Yuga Labs가 BAYC NFT 소지자에게 제공한 여러 특전(에어드랍)과 서비스 덕분에 가능했음(유명인 컨시어지 서비스 / 오프라인 이벤트 티켓으로 활용)

• IP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2차 창작 허용’

- Yuga Labs는 NFT 구매자가 해당 IP의 상업적 권리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 이것은 구매자들로 하여금 NFT를 보유함에 따른 지속가능한 ‘실용성’에 가치를 둔 것
- 다양한 2차 창작을 장려하는, 상업적 이용권리의 이전과 수익 공유 방식과 같은 NFT의 비즈니스 모델이 구축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할 것이라 전망

앞으로의 NFT 전망

• NFT 투자를 통한 ‘디지털 로열티’

- 디토 뮤직의 ‘오픈러스’라는 플랫폼은 음원의 ‘디지털 로열티’를 거래할 수 있는 NFT 런치패드와 NFT 거래소 기능을 보유. 이는 소비자가 투자자가 되어 아티스트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의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NFT를 활용한 의류업계의 ‘진품명품’

- NFT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소유권 입증 장치임을 인지하고, 진품을 판별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한 곳은 바로 명품 업체(LVMH의 아우라)
- 나이키는 이미 2019년에 NFT 관련 특허를 낸 NFT 기술에 가장 진심인 기업. 작년말 ‘3D 가상 운동화 제작’ 스타트업인 RTFT 인수로 NFT의 메타버스 활용에 중점

• NFT의 ‘증권화’와 ‘조각 투자’

- NFT를 평가할 때 주요 요소 중 하나는 유동성. ‘부분 NFT’를 활용하면 이전까지 거래가 어려웠던 담보불가능자산도 ‘조각투자’의 형태로 유동화 할 수 있는 혁신이 발생
- 부동산 등 조각투자를 향한 금융투자회사들과 관련 스타트업의 파트너십에도 주목

• 국가 차원의 규제와 제도화

- 조각투자와 부분 NFT, 그리고 DAO가 정착이 되기 위해 반드시 선별되어야 하는 것이 국가 차원의 규제. NFT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분류를 달리 해야 하는 특수성
- 대한민국의 새 정부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 계획 천명. 관련 산업 육성 기대

NFT가 가질 잠재력

• NFT 도입은 이제 시작

- NFT라는 게 대중에게 크게 소개된 지 이제야 1년도 채 되지 않았다는 점. 그만큼 혼란과 변동성이 클 수 밖에 없음. 다만, 앞으로 10년 뒤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NFT의 일반적인 용도가 절대 디지털 그림 같은 것을 사는 데에서만 그치지 않을 것
- NFT는 앞으로도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영역 모두에서 유틸리티를 제공할 것
- 블록체인 기술이 마치 인터넷처럼 일종의 기반(Foundation)이라 한다면, NFT는 이 기반 기술을 비로소와 달게 느끼게 해줄 대중화를 이끌 효과적인 장치

NFT 진화의 조짐

1. 2021년 NFT = 희소성에 기반

2021년에 특히 강하게 태동한 NFT의 가치 상승은, 어떤 요소들로 인해 이뤄졌던 것일까?

우리가 어떤 기호 물건을 산다고 했을 때, 다른 물건보다 내가 산 이 물건이 어느 정도 가치를 지니는지를 따지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그런 개인들이 세운 가치척도의 특수성을 제거해 봤을 때, 결국 보편적으로 남는 가치는 바로 희소성일 것이다.

그리고 그 희소성의 가치를 디지털 세상에서 가장 잘 나타내고 권리를 증명해주는 것이 NFT라는 사실은 투자자들로부터 공감을 얻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서, 2021년에 출현했던 수많은 NFT들은 각각의 희소성에 따라서 갖가지 가격 형태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 실제로 NFT 프로젝트 중 가장 대중에게 화제가 됐던 것들은 CryptoPunks(크립토펑크)와 BAYC 였는데, 이 두 프로젝트 모두 전세계적으로 각각 1만개씩만 민팅되어 판매되었다는 희소성 특징이 존재.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희소성을 더욱 강조하게 되는데 크립토펑크의 경우 ‘핑크 타입’이라는 것을 여러가지로 세분화. 외계인(9개), 유인원(24개), 좀비(88개), 여자(3,840개), 남자(6,039개)로써, 각각의 클래스를 나누어 희소한 순서대로 가격대에 차등을 주는 효과를 지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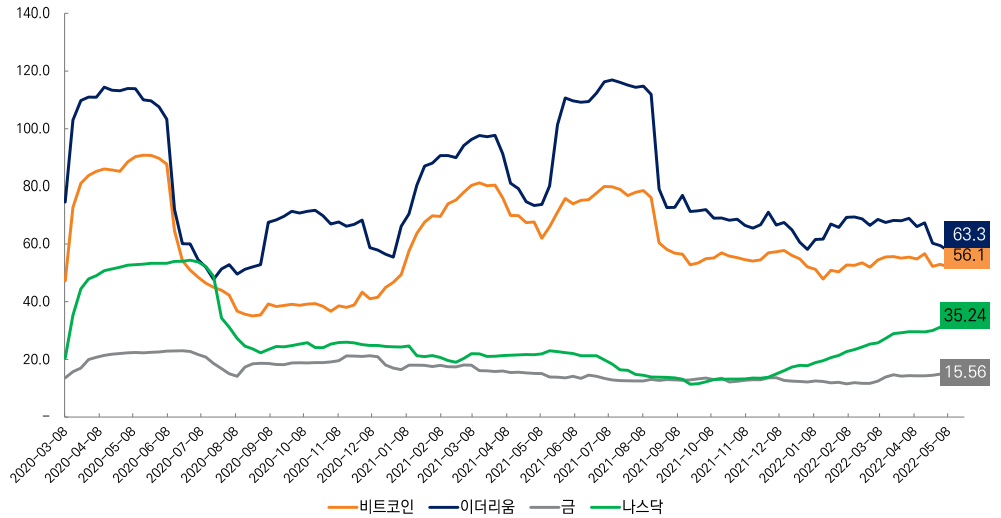
자료: CryptoPunks, Larva Labs

자료: BAYC, Yuga Labs

2021년은 분명히 NFT 시장의 ‘버블시대’였다. NFT의 효용가치가 무엇이 될 건지에 대해서는 투자자들로부터 받아 들여지지 못한 채, 미디어를 온통 휩쓴 것은 주로 디지털 미술품을 포함한 수집품 NFT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NFT들은 어떠한 사용가치에 기반한 것이 아닌 그야말로 ‘희소성에 기반한 디지털 아트’에 가까운 성격이 짙었다.

하지만, 현재 시점인 2022년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기본적으로 NFT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블록체인 암호화폐라는 것은 투자 대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 역시 위험자산에 속한다.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90일 기준 가격변동성으로 따졌을 때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변동성이 보통 2~4 배 정도 가량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디지털 세상에서의 금’, 이더리움을 ‘디지털 세상에서의 석유’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아직 그런 생각은 시기상조이며 기대사항에 가깝다고 시장은 판단하는 것 같다.

표 1. 주요 자산별 90일 기준 가격변동성 비교(비트코인, 이더리움, 금, 나스닥 종합지수)
 '디지털 금'이라는 별명에 무색하게 아직은 너무 높은 변동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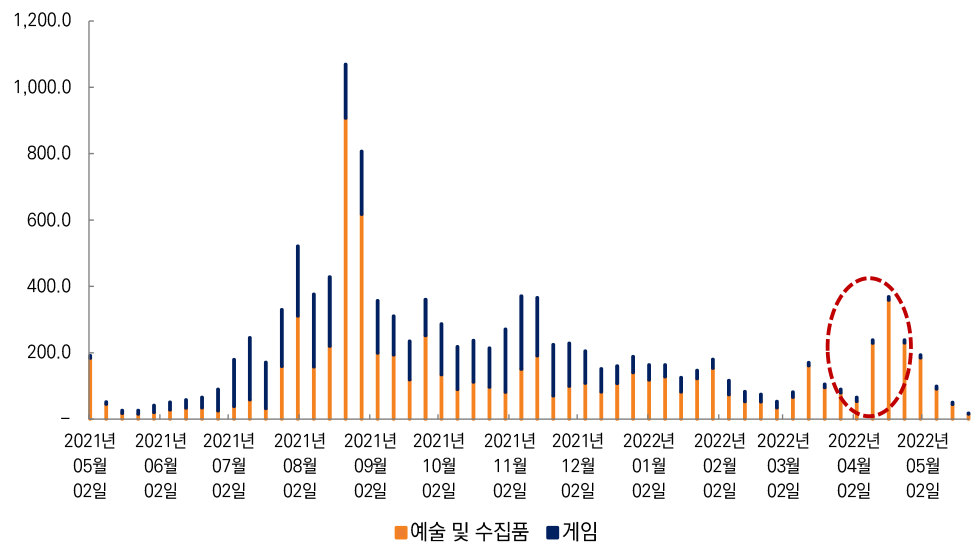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당연하게도 NFT 시장도 마찬가지다. 증시 분위기에 따라 가격의 변동성이 높다는 뜻이고, 이에 따라 NFT를 향한 자금의 유출입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현재 글로벌 증시를 포함해 많은 위험자산들의 가격이 조정을 맞아 하락을 크게 경험한 상태이고, 희소성에 기반한 NFT의 밸류에이션 또한 올해 몇 달을 거쳐가면서 많은 하락을 맞고 있다. 작년만 하더라도 ‘어떤 NFT가 수십억에 팔렸다더라’와 같은 NFT 관련 기사가 많았지만, 올해에는 비교적 찾아보기 쉽지 않다는 것이 바로 그 방증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NFT의 전체 거래 금액 또한 2021년 8월을 고점으로 해서 추세적인 하향을 면치 못하고 있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특히, 올해 1분기에 전반적인 금리 상승에 대한 두려움과 기술주를 향한 sell-off 흐름이 극에 달하자 거래금액도 상당한 침체기를 겪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표 2. 카테고리별 NFT 주간 거래금액 추이
 2021년 8월을 고점으로 추세적 하향이나, 4월에 '잠깐' 반등



자료: CRYPTOSLAM, THE BLOCK,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단위: 백만달러(USD)

다만, 올해 4분기 둘 째 주부터 급작스럽게 NFT의 주간 거래금액이 일정기간 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월 들어 나스닥 지수를 포함한 대부분의 글로벌 증시가 아주 상당한 출혈을 겪었고, 비트코인 가격 또한 급락을 면치 못했다는 사실과 비교해봤을 때 굉장히 이외의 상황이었던 것이다.

침체된 자본 시장 분위기는 그때도 여전했는데, NFT의 거래금액은 이때 왜 반등을 했던 것일까?

2. 크립토펑크보다 BAYC가 더 비싼 이유

[표 2]에서 다시 살펴 볼 만한 점은 4월의 NFT 거래금액 상승은 분명히 예술 및 수집품 카테고리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이는 ‘디지털 아트’ 분야에 있어서 NFT 시장을 휘어잡을만한 어떠한 큰 이벤트가 발생했다는 말과 같다. 그리고 그 이벤트의 주인공으로 가장 유력하게 꼽히는 사건은 바로 ‘Otherside’라는 NFT 게임의 출현이다.

이 Otherside 게임은 BAYC의 개발사인 Yuga Labs가 만든 새로운 RPG 장르의 메타버스 NFT 게임이다. 이 Yuga Labs라는 개발사는 지난 3월 23일, 4.5억 달러 규모의 자본조달에 성공했는데 이 때 평가받았던 기업가치가 40억달러로 한화로는 거의 5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이른 회사다.

각종 블록체인 기술회사들에 대한 네트워크가 상당한 애니모카브랜즈와 다르게 아직은 NFT IP 정도만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이 정도의 잠재력을 평가받았다는 점은 특이할 만하다.

또한, Yuga Labs에 대한 평가가 상승하는 것과 발맞춰 이 기업은 몸집을 불려나가고 있다.

지난 3월 12일에는 이 회사는 Larva Labs라는 곳으로부터 크립토펑크와 미빗츠의 지적재산권 인수를 단행했다. (아까 설명에 나왔던 그 크립토펑크가 맞다) 그러니까 NFT 프로젝트에 있어서 시가 총액 1등인 BAYC, 2등인 크립토펑크 둘 모두를 안은 회사가 탄생했다는 말이다.

그런데, Yuga Labs가 이렇게 NFT 시장에 있어서 일종의 공룡기업으로서 커 나가려고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보유한 여러 IP를 가지고 다른 영역으로 사업 확장을 하기 위함일 것이다. 필자는 이전 자료들에서 NFT 게임의 특성은 ‘상호 운용성(Interoperability)’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런 전략과 특성이 비로소 드러나는 공간이 바로 이 Otherside 게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3. Yuga Labs가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IP 세 가지(BAYC, 크립토펑크, 미빗츠 등) 2022년 3월 12일, Larva Labs로부터 크립토펑크와 미빗츠의 지적재산권(IP) 인수



자료: Twitter 'Yuga Labs'

**그림 4. Otherside 게임의 티저 영상에 나온 Yuga Labs 소유의 여러 캐릭터들
오픈 메타버스를 추구하여 BAYC 소유자만이 아닌 다른 NFT들도(크립토펙크, 미밋츠 등) 활용 가능**



자료: Yuga Labs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이것에서 Otherside NFT 게임이 어떤 식으로 운영될 것인가 가능해볼 수 있다. 해당 그림에 나와있는 NFT IP들은 크립토펙크, 크립토크에드, MAYC, Cool Cat, 미밋츠, World of Women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BAYC의 개발사가 만든 메타버스 NFT 게임이지만, BAYC의 주인공들인 유인원들로만 게임을 꾸미지 않겠다는 의도다. 다시 말해, 여러 IP가 같이 게임에 참여해서 게임의 색깔을 보다 풍성하게 만들겠다는 회사의 의지다.

이는 더샌드박스 개발진들이 게임에 여러 NFT를 적용해서 쓸 수 있게 하겠다는 상호운용성의 철학과 같다고 할 수 있지만, Yuga Labs의 방식이 좀 더 진행의 속도가 빠를 수 있다고 본다. 본인들이 직접 IP들을 다 인수했기 때문에 이 NFT들을 가지고 게임에 적용하는 등 2차 창작 문제에 있어서 다른 이들과의 이해관계 논란이 없기 때문이다. 바꿔 생각하면 다른 개인이나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IP를 내가 만드는 콘텐츠에 적용시키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그리 쉬운 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소니픽처스가 판권을 가지고 있는 스파이더맨이 ‘마블코믹스’에서 엄청난 인기 캐릭터임에도 불구하고,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 비교적 (많이) 늦게 합류한 것과도 같은 이치다.

따라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여러 인기있는 IP들을 흡수하는 형태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많은 IP를 포괄하며 본인이 오픈 메타버스의 역할을 맡겠다는 포부로도 읽을 수 있다. Yuga Labs가 점점 더 커지면 커질수록 많은 NFT 프로젝트들은 Yuga Labs에 대한 교섭력을 잃을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향후에 본인들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라이선스 논의를 할 때에 Yuga Labs에게 장벽을 낮출 수 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NFT 시장에서의 그들의 프로젝트가 어떻게 발전하는지 얼마나 빨리 몸집을 키우는지 지켜보는 것은 앞으로 오픈 메타버스형 NFT 게임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물론, 메타버스 게임, NFT 게임이라는 것은 일전에 소개했듯이, Otherside보다 일찍이 시작한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다. 그 중 대표적으로 꼽히는 두 곳이 바로 디센트럴랜드와 더샌드박스이다. 그리고 Otherside의 경우에도 아직 분명히 공개된 것은 없지만, 이 두 게임과 상당히 유사한 형태를 띠는 게임인 것으로 추측된다. 왜냐면 이 게임에도 디지털 부동산이라는 개념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이다. 디센트럴랜드와 더샌드박스에서 LAND라고 불리는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Otherside는 지난 4월 말에 게임 내 디지털 부동산 NFT에 대한 첫 판매를 개시했다.

그림 5. BAYC 개발사인 Yuga Labs가 만든 RPG 장르의 NFT 게임, 'Otherside'
2022년 4월 30일, 게임 내 디지털 부동산인 'Otherdeed' 민팅(첫 NFT 판매) 개시



자료: Yuga Labs

한국 시각으로 5월 1일 오전 10시에 개시된 Otherdeed의 민팅 결과는 아주 성공적이었는데, 런칭한지 45분만에 1억달러 규모의 자금이 쏟아져 들어왔기 때문이다. 좀 더 집계를 해봐야겠지만 이 날 하루에만 약 3.2억 달러 규모의 디지털 부동산이 판매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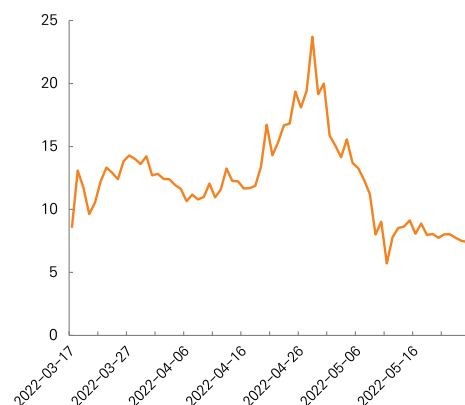
BAYC NFT를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당연히 이번 Otherside의 디지털 부동산 NFT를 구매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ApeCoin(APE)이다. 이번 민팅에서는 55,000개의 구획(parcel)이 판매되는데, 한 구획 당 가격은 305 APE으로 고정되어 있다.

** APE: Otherside 게임 내에서 모든 상호작용을 위한 네이티브 토큰(기축통화) 역할. ERC-20 토큰으로써, 이더리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거래되는 토큰임. 더샌드박스의 SAND, 디센트럴랜드의 MANA와 같은 Fungible Tok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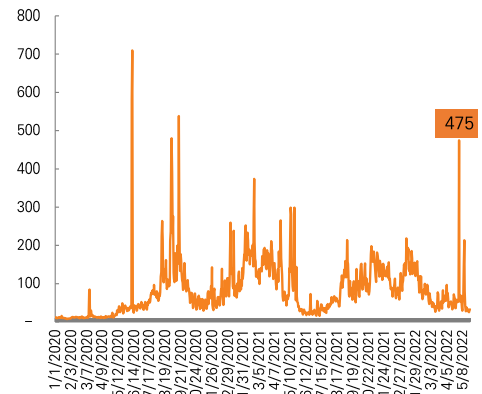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축통화 APE 토큰의 가격은 3월 17일(상장일)에 비교했을 때 부동산 판매 당일인 4월 30일이 되기 까지는 두 배 가량 높이 뛰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민팅 직후 이벤트 기대감이 소멸하자 'SELL THE NEWS' 효과가 발생하며 급락이 연출되었다.

다만, 그만큼 Otherside 게임 출시에 대한 NFT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높았다는 것이 중요하다. 비트코인을 위시한 전반적인 암호화폐 자산시장이 암울한 최근 상황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표 3. Otherside의 기축통화 토큰인 'APE'의 가격추이 표 4. 이더리움 일간 평균 가스비 추이
가상부동산 판매 당일인 4월 30일 직전까지는 급등 Otherside 가상부동산 경매 개시 이후 급등



자료: TradingView,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단위: APE/USD



자료: etherscan,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단위: Gwei (10억분의 1 이더리움)

다만, 이 APE 토큰도 이더리움 블록체인 네트워크 기반에서 만들어진 토큰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높은 네트워크 수수료(가스비)가 부담이 될 수는 있다. 실제로 이번 Otherdeed 부동산 경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더리움의 가스비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일정 금액 이상(약 700~900만원에 육박)의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어야만 한다. APE 토큰 민팅은 NFT 시장에 활기를 불러 일으킬 정도로 화제거리였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일평균 가스비는 5월 1일에 평소 대비 5배 가량 급증하기도 했다. **[표 4]**

하지만 그럼에도 사람들이 더욱이 BAYC를 매력적으로 느끼는 이유는 바로 NFT 생태계의 Airdrop(무료 배포)라는 문화다. 실제로 지난 3월에 Yuga Labs는 BAYC NFT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에게 BAYC 생태계와 연관된 암호화폐라고 할 수 있는 APE 토큰을 특전으로 배포했다. 주식으로 굳이 비교해보자면, 주주들에게 알짜 상장예정기업의 주식을 상장 전에 미리 주는 셈이다. 당연히도 굉장한 특전으로 비춰질 수 있다. APE 토큰의 경우 우리가 방금 살펴봤듯 상장 직후 뚜렷한 가격상승을 불러 냈으므로 BAYC 자체에 대한 가치도 더욱이 상승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이처럼, 본인들의 NFT 생태계가 앞으로도 잘 굴러갈 것이라는 믿음에 기반한 ‘자생적 강화’ 방법이 이 Airdrop과 같은 특전이다. BAYC는 NFT의 여러 특전들을 너무나도 잘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로부터 꾸준한 지지를 받는 것이다.

[표 5]를 확인해보면 그 효과를 더욱 극적으로 느낄 수가 있다. 5월 26일 기준, 최근 30일간의 거래금액을 놓고 따져봤을 때, TOP 5 NFT 프로젝트 중 1위부터 3위까지가 전부 Yuga Labs가 만든 IP들로 채워졌었으니 말이다. 특히 Otherside의 거래금액을 보면 그 인기를 증명하기도 한다.

* Otherdeed: Yuga Labs가 보유한 IP들이 중심 캐릭터가 되는 메타버스 게임인 ‘Otherside’의 디지털 가상 부동산

* Bored Ape Yacht Club: 약칭 BAYC로 불리며, 지금의 Yuga Labs를 만든 가장 비싼 프로필 사진형 NFT 프로젝트의 대표주자

* Mutant Ape Yacht Club: 약칭 MAYC로 불리며, BAYC 소지자들에게 Airdrop된 특정 아이템을 적용하면 원래 NFT인 BAYC는 사라지고 새로운 좀비 캐릭터인 MAYC NFT가 발생

표 5. 30일간 거래금액 기준 TOP 5 NFT 프로젝트
거래금액 1위, 2위, 3위가 전부 BAYC 생태계 관련 NFT

NFT 프로젝트	네트워크 기반	30일간 거래금액
Otherdeed * Otherside 내 가상부동산 명칭	이더리움	\$929,673,181
Bored Ape Yacht Club(BAYC)	이더리움	\$276,200,549
Mutant Ape Yacht Club(MAYC)	이더리움	\$226,932,740
Azuki	이더리움	\$154,413,525
projectPXN	이더리움	\$122,389,968

자료: CRYPTOSLAM,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기준시점: 2022년 5월 26일 오전 8시 30분 K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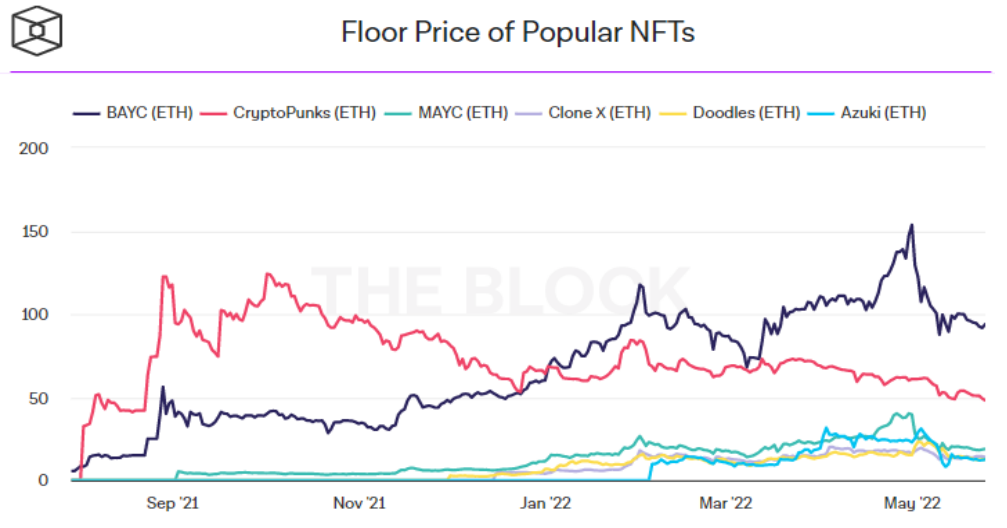
따라서 지금은 Yuga Labs의 NFT 생태계가 현존하는 어떤 NFT 프로젝트들보다도 성공적인 NFT로 불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지금의 Yuga Labs를 있게 한 BAYC NFT의 흥행이 지속되고 있는 덕분이다.

[표 6]는 주요 NFT 프로젝트들의 Floor Price 추이를 보면 이런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 Floor Price: 즉시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의 최저 가격

작년에 NFT가 본격적으로 대중에게 공개되고 각종 미디어에서 암호화폐의 높은 판매가격을 소개하던 때만 하더라도 암호화폐가 BAYC보다 훨씬 가치가 높은 NFT로 인식됐었다. 하지만 2021년 12월 22일, 처음으로 Floor Price가 역전되더니, 올 4월 들어서는 Otherside 오픈과 APE의 코인 공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차이가 극명하게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6. 주요 NFT 프로젝트들의 최저 입찰가격(Floor Price) 추이
BAYC가 올해 초를 기점으로 암호화폐를 역전 후 4월들어 본격적으로 벌어진 차이를 유지 중



자료: NFT PRICE FLOOR, THE BLOCK
 기준일자: 2022년 5월 25일

특히, 비트코인 시장의 전반적인 조정에도 비교적 BAYC가 강했던 이유는 NFT의 가치를 증대 시키려면 결국 ‘실용성’ 확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이 **[표 6]**에서 더욱 주목할만한 것은 둘 간의 가격 동향이다. 작년 4분기부터 암호화폐의 최저입찰가격은 하향 안정세를 띠기 시작했었는데, BAYC는 5월 초까지는 꾸준히 우상향을 그려냈다는 것이다. 이것은 꼭 BAYC가 Otherside 게임 런칭이라는 긍정적인 재료뿐만 아니라 Yuga Labs가 BAYC 소지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여러 권리와 서비스 덕분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런 사업 방식은 앞으로의 NFT 프로젝트들에게도 영감을 주어 NFT 비즈니스의 모범사례로써 작용할 수도 있다고 본다.

(1) 유명인을 끌어들이기 위한 ‘컨시어지 서비스’

BAYC는 MoonPay라는 암호화폐 전문업체와 파트너십을 통해서 컨시어지 서비스를 셀럽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컨시어지 서비스는 유명인사들을 본인들의 커뮤니티에 끌어들이는 전략이다. 에미넴, 스눕독, 마돈나, 저스틴비버, 지마펠런, 패리스힐튼, 스테판커리, 네이마르 등 유명인들과 콜라보를 진행하면서 커뮤니티에 대한 소속감을 드높이는 방식이다.

* MoonPay는 2019년에 태동한 기업으로 가상자산 결제서비스 업체. 신용카드와 애플페이, 구글페이, 삼성페이, 오픈뱅킹 등 수단을 이용해 가상자산을 구입할 수 있는 플러그인 서비스를 제공. 설립 2년 반만인 2021년 11월 코야투와 타이거글로벌 등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으며, 이때 34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음.

특히 최근 OpenSea와 협력해서, 신용카드로 NFT를 살 수 있도록 하는 결제방법을 지원하게 됨. 즉, NFT를 사기 위해 외부 거래소에서 이더리움 등을 구매하여 암호화폐 지갑을 통해 갖고 와야 하는 수고로움이 사라지는 셈. 따라서 NFT의 대중화에 앞장선 스타트업이라고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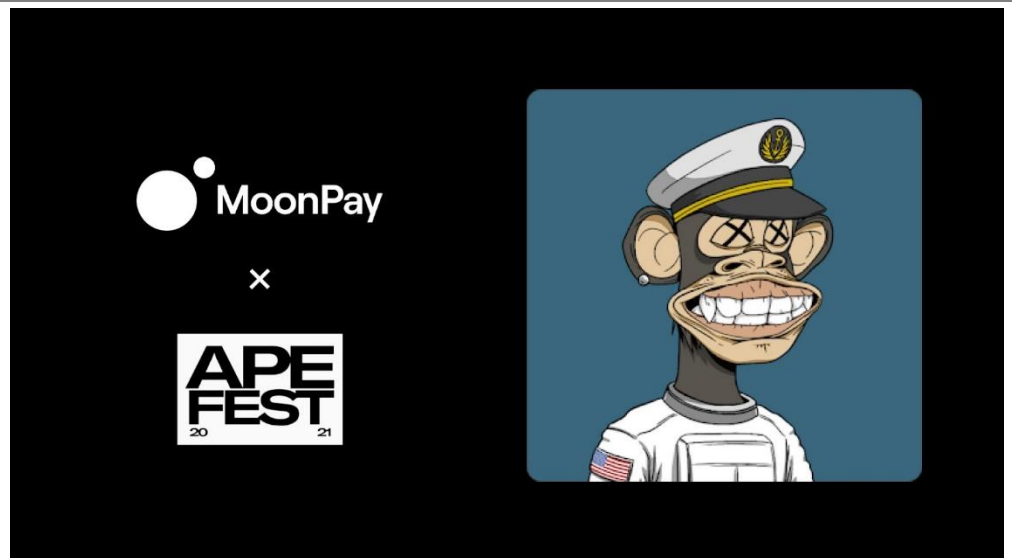
NFT의 흥행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요소 중 하나가 바로 팬덤 문화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은 유효하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지미 팰런(미국의 '유재석' 정도로 불리는 유명 방송인)의 경우에는 본인이 MC인 'Tonight Show'에서 BAYC NFT를 구입했다고 발언했고, 이 내용은 곧바로 생중계로 미국 전역 시청자들에게 전해졌었다. 이는 BAYC와 NFT의 유행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림 6. BAYC NFT를 보유하고 있는 유명인사 15인



자료: The Crypto Times

그림 7. MoonPay: BAYC의 오프라인 파티인 'Ape Fest'의 핵심 파트너이자 스폰서



자료: MoonPay

이와 비슷한 사례로서, 더샌드박스의 스눙독을 꼽을 수 있다. 스눙독은 거의 앰버서더의 지위격으로 해당 NFT 게임의 흥행을 전면에서 돕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스눙독의 팬들이 스눙독이 보유한 가상부동산 옆의 부동산을 사들이고 가상 콘서트에 참석을 하면서, NFT 안에서의 팬덤 커뮤니티를 더욱 공고하게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 NFT의 성공에 있어서, 훌륭한 IP와의 콜라보레이션과 그에 따른 팬덤문화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한국의 엔터社들에게 NFT 관련 기업들의 러브콜이 쇄도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BAYC가 제공하는 컨시어지 서비스라는 것은 그리 복잡한 개념은 아니다. NFT를 매매하고자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은 암호화폐 지갑을 만드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메타마스크 등 암호화폐 지갑을 만들어서 NFT 마켓플레이스에 연동을 시키는 행위부터가 굉장히 피곤한 작업이기 때문에 많은 유저들이 이때 포기하고 이탈을 한다고 한다. 이에 따라 BAYC에서는 본인들의 NFT를 구매하고 커뮤니티에 보다 쉽게 포섭하기 위해서, 암호화폐 지갑설정에서부터 코인 매매와 NFT 구매 및 보관까지 소과정에 걸쳐서 셀럽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2) ‘오프라인 파티’를 위한 ‘티켓’으로 활용

NFT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를 허물면서 유틸리티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오프라인 현실세계에서의 유틸리티를 가장 열정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곳이 바로 BAYC이다. BAYC는 NFT 구매자들에게 오프라인에서 개최되는 Private 파티에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을 특전으로 제공한다.

그림 8. 2021년 10월 30일 뉴욕 맨하탄에서 성황리에 개최된 첫 번째 오프라인 파티, ‘Ape Fest’



자료: Twitter 'Neutral_Spirit'

그런데, 만약 구글 이미지 검색으로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BAYC 그림을 캡처한 뒤 다운받아서 그 오프 클럽이나 파티에 입장할 수는 없을까? 당연하게도 우리는 문전박대 당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NFT가 기존 디지털 이미지와의 차별성이 나오는 지점이다.

여기서 이야기를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해본다면, 현재의 모바일 티켓 사업을 NFT가 대체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된다. 기존의 모바일티켓은 명확하게 소유권이 증명되지 않다 보니 정식으로 누군가에게 양도한다는 것이 불가능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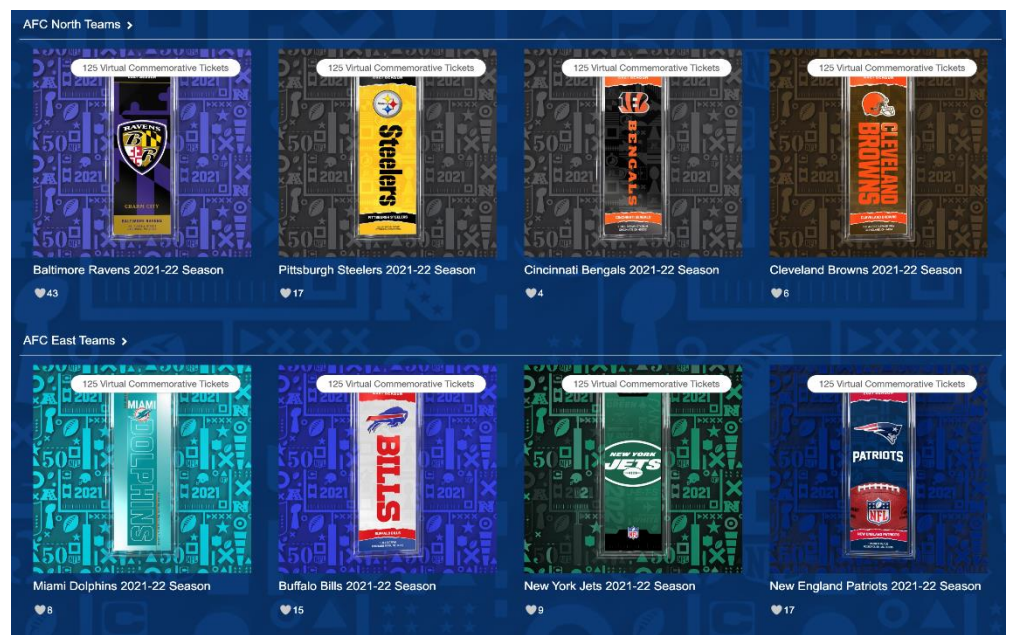
‘카카오톡의 선물하기’를 한 번 떠올려보자. 나는 기존에 내가 받아 놓아 선물함에 있는 선물을 JPEG 파일로 다운 받아 수 천명의 사람에게 일괄적으로 전송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것은 수 천명 중 어떤 한 사람이 사용하기 직전까지는 모두에게 유효한 티켓이다. (심지어 그냥 내가 써버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정식으로 그 티켓이 나에게 양도됐다’라는 것은 그 누구도 증명할 수 없다. 즉, 누구도 그것에 대한 소유권을 명백하게 증명할 수 없다는 뜻이다.

실제로 CNBC의 보도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스포츠 입장권을 구매할 경험이 있는 사람 중 12%가 가져를 받았다는 경험이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을 정도니 말이다.

하지만, NFT는 다르다. NFT는 디지털 소유권이 누구로부터 누구에게로 양도됐다는 것을 명확하고 안전하게 기록해주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즉 블록체인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티켓을 발행하는 기업 입장에서도 더 정확한 구매자 데이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업들의 NFT 활용은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모바일 티켓을 샀고, 또 어떻게 재유통 됐는지’와 같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더 정교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입장권의 N차 판매가 이뤄지는 2차 입장권 시장은 미국에서만 15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한 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NFT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이다.

그림 9. 지난 시즌 21개 경기에 대해 NFL이 실제 판매 했었던 ‘NFT로 만들어진 경기 티켓’



자료: NFL

다시 돌아와서, 따라서, BAYC NFT를 구매한다는 것은, 단순히 PFP(프로필 사진)의 JPEG 확장자의 그림을 사는 개념이 아니다. 그 NFT를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BAYC의 오프라인 커뮤니티와 각종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는 티켓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현재 그 NFT 티켓을 활용해서 오프라인 행사 등에 참석하는 사람들 중 유명한 셀럽의 숫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또한 그들과 함께 하고 싶은 팬덤들도 NFT 커뮤니티원으로 합류될 가능성이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3. IP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2차 창작 허용’

기존의 BAYC는 원숭이 그림에 여러 유명 캐릭터들을 오마주해서 그걸 NFT화한 수집형 NFT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렇게 지금처럼 위상이 달라지게 된 것은 NFT의 실용성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실용성 측면을 살리기 위해 BAYC가 택한 방법은, NFT 구매자가 해당 IP의 상업적 권리까지 보유하게 허용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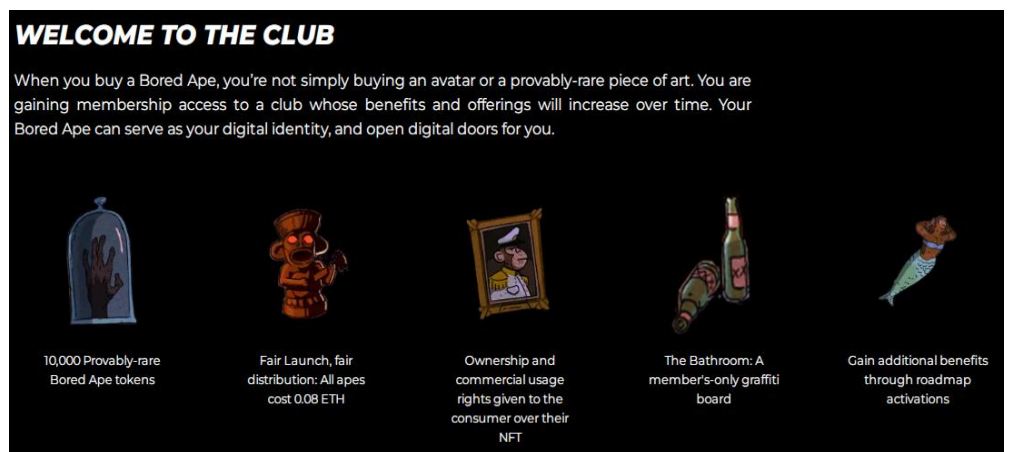
즉, BAYC 소유자들은 본인이 보유한 NFT에 대한 디지털 저작권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다.

저작권의 본질은 ‘사본을 만들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NFT 구매자는 저작권이 아닌 디지털 소유권만 가지므로 NFT의 콘텐츠 사본을 유통하거나 판매할 수도 없고, 2차 창작물을 만들 권리도 없다. 하지만, BAYC는 이를 허락함으로써 NFT의 지속 가능한 실용성에 가치를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다. 시장에서 희소한 NFT를 사두고 개인적으로 그냥 만족하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사서 결국 무언가 할 게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결국 NFT를 보유해야 하는 이유를 계속 만들어 준다는데 의미가 있다.

따라서 BAYC NFT 소유자들은 본인이 구매한 IP를 기반으로 영화나 TV 시리즈를 제작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책, 커머스 분야를 포함해 다방면의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대다수의 NFT 프로젝트가 소유자의 상업적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 실제로, 그래미상을 수상한 프로듀서이자 음악가인 Timbaland는 AIP(Ape-In Productions)라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개시할 정도다.

다만, BAYC 공식 사이트를 보면, 본인 소유의 BAYC로 만든 2차 창작물을 판매할 경우에 수익의 50%는 공유해야 한다는 조건이 기재되어 있다. 이는 앞으로 대부분의 NFT 프로젝트들이 선택하게 될 비즈니스 모델이 되지 않을까 예상되는 부분이다.

그림 10. Yuga Labs가 설명하는 BAYC 소유자들의 권리 사항
소유권만이 아닌 상업적이용권리(Commercial Usage Rights)도 소유자에게 이전되는 것이 핵심



자료: Yuga Labs

한편, BAYC의 소유자로 하여금 2차 창작 권한을 부여한 가장 좋은 예는 바로 아디다스와의 협업으로 설명할 수 있다. 작년 12월 17일, 아디다스는 본인들의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인 아이다스 오리지널을 통해 BAYC와 손잡고 이들의 작품 중 하나(#8774)를 구매했다. 여기에 본인들의 트레이닝복을 입힌 다음 이것을 또 NFT로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는 프로젝트를 런칭했다.

그 프로젝트의 공식 명칭은 바로 ‘메타버스 속으로(Into the Metaverse)’였다. 이것만 보더라도 메타버스와 NFT라는 것이 얼마나 뿔레야 뿔 수 없는 사이인지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림 11. 아디다스가 만든 BAYC IP 기반 아바타 NFT **그림 12. NFT 구매자가 받게 될 실제 후드 티 모양**
아디다스가 NFT 시리즈 판매로 올린 매출, 약 290억원 해당 NFT의 암호화폐 주소가 기재돼 있는 형태



자료: adidas



자료: adidas

또한, 단순 판매에서 그치지 않고, 아디다스는 본인들의 NFT를 구매한 소유자들에게 여러가지 특전을 제공하기도 했다. **[그림 12]** 본인이 구매한 NFT에서 디지털로 표현된 트레이닝복과 똑같은 실물 상품(한정판) 또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독점적으로 제공한 것이다. 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각각 다른 세계에서 모두 유틸리티를 제공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이를 가장 잘 이해하는 NFT 기업이 Yuga Labs 였기 때문에 아디다스가 이들과 손을 잡은 게 아닌가 생각된다.

아디다스가 이 프로젝트에서 준비한 NFT 시리즈들은 개당 100만원꼴로 판매 되었는데, 이 때 아디다스가 모든 물건을 판매하는데 걸린 시간은 불과 몇 초였다. 그리고 총 매출은 현재 환율로 따졌을 때는 약 290억원에 육박한다.

참고로 아디다스는 메타버스, NFT에 가장 진심인 기업중 하나이기도 하다. 대표적인 NFT 게임인 더샌드박스의 디지털 부동산인 LAND를 구매해서 거기에서 ADIVERSE라는 컨셉으로 본인들의 IP를 홍보하고 있다. 이에 질세라 경쟁기업 나이키도 가상 운동화 회사인 RTFKT를 인수했고, 로블록스에서 본인들의 상품을 NFT로 판매할 계획을 세우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각종 산업에서의 ‘메타버스와 NFT 러시’가 제대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으로, 이러한 거대 브랜드와 BAYC의 협업 사례처럼 IP를 가진 기업들과 NFT 기업들간의 콜라보레이션은 일상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방식은 NFT의 커뮤니티를 더욱 단단하게 해주며, 기존의 IP를 소모하는 게 아니라 더욱 가치를 증진시켜주는 방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양한 2차 창작을 장려하는, 상업적 이용권리의 이전과 수익 공유 방식과 같은 NFT의 비즈니스 모델이 구축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할 것이라고 본다.

우리는 지금 진화의 태동기에 있다.

앞으로의 NFT 전망

1. NFT 투자를 통한 ‘디지털 로열티’

어떤 NFT를 가치평가 한다고 했을 때 고려하게 되는 요소들을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

2021년에 NFT 시장의 광풍을 이끌었고, 그 자체로 NFT의 본질이라고도 할 수 있는 ‘희소성’만을 고려하면 될까? 광풍이 꺼진 지금으로서는, 아니 앞으로도 더더욱 그게 아닐 가능성이 높다.

희소성이라는 특성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NFT도 실용성이 분명히 좋아야 한다. 2022년인 올해부터는 NFT를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이 전반적으로 열기가 확실히 가라 앉은 냉각기를 겪으면서, NFT가 과연 가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 좀 냉정하게 살펴보는 시간으로 자리매김 될 것이다. 자연스럽게 본격적으로 실용성이 높은 NFT가 더 높은 가치평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NFT의 실용성이라는 것은, NFT를 보유함에 따라서 내가 가질 수 있는 어떤 경제적 혹은 문화적인 혜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NFT가 진화하고 시장에 정착해감에 따라서 이것을 쉽게 매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동성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부상할 수 밖에 없다.

유동성 부분에 대해서는 후술하도록 하고, 실용성에 대해 우선 집중해보도록 하자.

표 7. NFT 투자 전 알아둬야 하는 가치평가 중요요소 3가지
2021년, NFT 시장의 Hype는 희소성에 기반, 과연 앞으로도 그럴까?



자료: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그 누구도 NFT 시장의 미래를 단언할 수 없겠지만, 최근 NFT의 실용성과 관련한 새로운 시도가 실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까 설명한 BAYC NFT컬렉션도 이와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원래 일반적인 경우 NFT 구매자는 저작권이 아닌 디지털 소유권만 가진다. 저작권은 양도 받지 않기 때문에 NFT의 콘텐츠 사본을 유통하거나 판매할 권리를 갖지 않는다. 따라서, 2차 저작물(NFT의 콘텐츠에 기반한 다른 작품)을 만들 권리도 당연히 없다. 물론, 창작자가 구매자에게 저작권을 양도한다는 명시적인 서면 동의서가 있다면 양도받는 것도 가능하긴 하다.

하지만 최근에 나오는 실제 여러 비즈니스 사례로 봤을 때, 잠재적으로 저작권의 양도와 이전까지 NFT의 주요 기능 중 하나로 편입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2021년 3월 5일, 미국의 유명 락밴드인 킹스오브레온(Kings of Leon)은 유명 가수 중 최초로 NFT 앨범을 발매했다. 그리고 이 NFT 앨범 판매로 해당 뮤지션은 자그마치 200만 달러 넘는 금액을 벌어들였는데, 이 NFT에는 오프라인 특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성공적인 NFT로 기록될 수 있었다. 특전이라 함은, 이 NFT를 구매하면 Kings of Leon의 향후 모든 투어에서 앞 줄 좌석 이용권리를 평생 이용하게 해준다는 것이었다. 납득할 수 있는 문화적인 실제 혜택을 준 것이다.

그림 13. 유명 가수 중 최초로 NFT 앨범을 판매한 뮤지션: Kings of Leon
 현실세계에서의 특전 제공으로 성공적 NFT로 분류



자료: YelloHeart

그리고 이런 유명 가수뿐만 아니라 인디 뮤지션들의 NFT 활용방식은 더욱이 NFT의 ‘경제적’ 실용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미국의 랩퍼인 ‘테일러 베넷’과 ‘빅 주’는 본인들의 미공개 음원에 대한 디지털 로열티를 지닌 음원 NFT를 만들어서 판매했다. 일종의 저작권과 비슷한 개념이 들어가 있는 NFT라고 할 수 있는데, 즉, NFT를 구매하게 되면 단지 소유권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상업적 이용권리도 함께 구매하게 되는 경제적 실용성에 입각한 것이다.

이들은 음원유통사 Ditto Music이 만든 Opulous(오퍼러스)라는 NFT 플랫폼에서 판매를 개시했다. 개당 100달러의 가치를 갖는 100USDC(USD코인이라 불리는 이더리움 기반 스테이블 코인)에 판매했는데, 5분만에 125개의 NFT가 모두 품절되었다는 것이 사람들을 놀라게 한 대목이다.

이들의 판매 전략을 좀 더 디테일하게 따져보자면, 랩퍼 테일러 베넷과 빅 주의 NFT 구매자가 소유하게 되는 것은 ‘저작권의 1%’가 아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산 권리는 무엇일까? 바로 그 음원이 앞으로 벌어들일 ‘디지털 로열티의 1%’를 받을 수 있는 라이선스인 것이다. 저작권과 이 디지털 로열티가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작권을 보유하는 것’과 ‘수익 흐름의 일부를 소유하는 것’에는 엄연히 큰 차이가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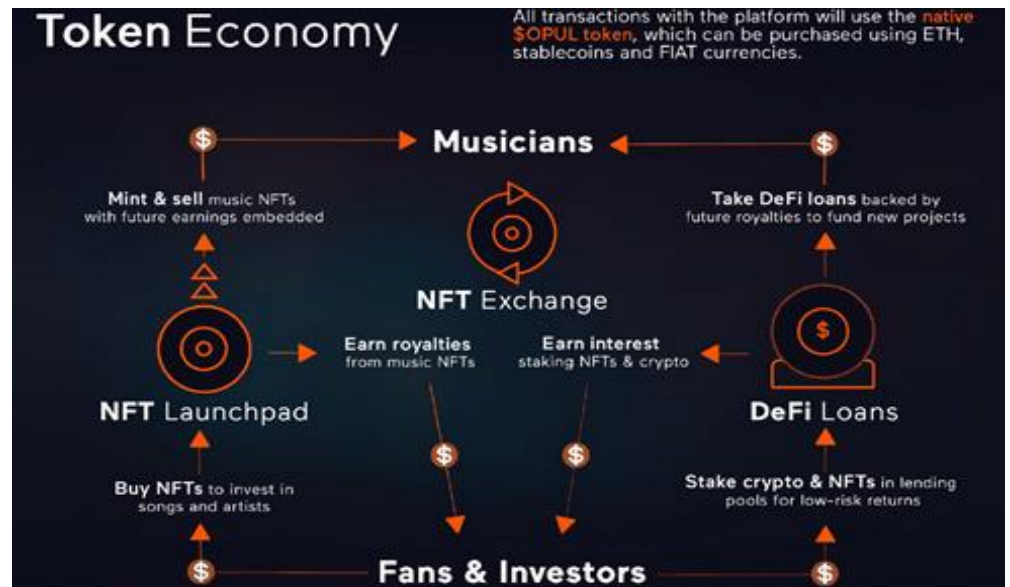
저작권의 1%를 소지하고 있다는 것은, 디지털 로열티의 1%뿐만 아니라 ‘해당 음원으로 벌어들인 모든 수익’의 1%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디지털 로열티의 1%는 온라인상의 음원 유통에 따른 수익의 1%에만 권리가 있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해당 음원이 영화나 TV 광고에 사용될 목적으로 쓰이게 된다면, 저작권의 1% 소유자는 권리를 주장해 혜택을 입을 수 있지만 디지털 로열티의 1%에 대한 소유자는 단 한 푼도 받지 못한다는 점은 이해를 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가 더욱이 중요하게 봐야할 점은, 바로 NFT라는 장치를 통하여 음악에 대한 접근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바로 한 음원에 대한 소비자로서만 그쳤었던 과거에서, 앞으로는 투자자로서 개인들이 자리할 수 있다는 말과 같다. 다만, 단순히 투자가 아닌 팬심에 기반한 것인데, 팬의 입장에서 내가 좋아하는 뮤지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의 투자를 한다는 점에서 좀 더 지속 가능한 투자가 될 수도 있다는 장점을 내포하고 있다.

아까 잠깐 언급했던 세계 최대의 온라인 음반 유통 회사 Ditto Music을 다시 한 번 좋은 예로 들어볼 수 있다. 이 회사는 영국 리버풀에 소재한 곳으로 스포티파이, 애플뮤직 등을 포함한 160개 이상 디지털 플랫폼들에 음원을 배포하는 굉장한 메이저급 회사로 꼽힌다. 한국인에게도 친숙한 Ed Sheeran과 Sam Smith도 과거에 디토 뮤직에서 본인들의 음원을 유통한 적이 있을 정도다.

그런데 이 디토 뮤직에서 ‘오픈러스’라고 불리는 NFT 플랫폼을 2021년에 선보였다는 것이 우리가 눈여겨 볼만한 지점이다. 이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은 음원의 ‘디지털 로열티’를 거래할 수 있는 NFT 런치패드와 NFT 거래소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리고 이것이 음악 산업계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최근 촉망받고 있다.

그림 14. 오픈러스의 NFT 플랫폼 구조(NFT 런치패드 / NFT 거래소 / DeFi 대출)
음원 디지털 로열티 거래를 위한 플랫폼으로써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



자료: Opulus

이 오픈러스 음원 NFT 플랫폼은 3가지 단계로 나뉘어져 있는데, 우선, 마치 NFT 마켓플레이스와 마찬가지로 뮤지션들이 본인들의 음악을 NFT로 민팅해서 팔 수 있다. 오픈러스 플랫폼에서는 ‘NFT 런치패드’라는 장치로 민팅과 NFT 초기 투자가 가능하다. 주식으로 치면 일종의 발행시장 역할을 하는 셈인데, 여기서 아티스트는 본인의 음원 창작물을 민팅하여 판매가격을 자신이 직접 설정한 뒤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매력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이 민팅된 NFT들이 투자자들로부터 구매가 되면, 그 뒤에는 ‘NFT 거래소’에서 음원 NFT들의 ‘유통시장’ 역할을 맡게 된다. 그러니까 주로 여기서 투자자들끼리의 거래가 이뤄지게 되는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NFT 마켓플레이스와 같은 개념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뿐만 아니라 뮤지션들은 ‘DeFi 대출’을 통해 추가적인 자금조달까지 할 수가 있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본인이 출시할 음원이 앞으로 어느 정도의 저작권료를 발생시킬지 미래의 현금흐름에

기반해 담보를 잡고 대출을 받는 형식이다. 즉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음원 NFT 판매 수익에 더해 NFT의 IP를 기반으로 한 담보대출을 통해서 유동화 금융에까지 도달할 수 있다.

한편, 소비자/투자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 이 오픈러스 플랫폼에서 음원 NFT를 산다는 것은 음원의 디지털 로열티 중 ‘일부’를 가지게 된다는 말과 같다. 이는 곧 이 디지털 음원으로 앞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미래의 수익 중 일부를 내가 함께 얻게 된다는 뜻이다.

여기서 ‘일부’라고 필자가 강조한 이유는, 해당 음원의 디지털 로열티 전부를 얻게 되는 개념은 아니기 때문이다. 권리의 일부만 구매하는 것인데, 이것은 원작자인 아티스트가 본인들의 음원 저작권을 다 팔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마치 기업의 창업주가 본인은 대주주로 남고 남는 지분을 파는 형식과 같은 것이라 이해하면 쉽다.

예를 들어서, 걸그룹 에스파의 ‘Next Level’ 음원이 NFT 민팅됐고 그것을 내가 샀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나는 그 음원의 부분적인 디지털 로열티를 갖게 된다. 그리고 해당 음원이 멜론이나 지니뮤직 같이 온라인에서 유통됐을 때 벌어들일 수익 중에 일부가 매달 내 계좌에 꽂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물론 그 음원이 실제로 NFT로 나오게 된다면 엄청 비싸겠지만, 그만큼 소유권과 저작권을 쪼개서 투자자들에게 파는 것일테니 많은 투자자들이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여기에서 ‘부분 NFT(Fractional NFT)’라는 개념으로써, 소액 분할 투자 방법이 대두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소액 분할 형태이기 때문에 거래의 유동성이 확보돼 거래량이 유의미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 부분 NFT와 이를 통한 유동화 작업은 이후 등장할 챕터에서 다룰 예정*

표 8. 1위 NFT 마켓플레이스 ‘오픈씨’ 대비 오픈러스 NFT 플랫폼이 가지는 장점

NFT 기능	OPULOUS(오픈러스)	OpenSea(오픈씨)
저작권 기반 NFT	가능	불가
부분 NFT	가능	불가
디지털 로열티 투자자 직접 배분	가능	불가
다수 투자자들에게 분할 배분	가능	불가
신용카드로 결제가능여부	가능	불가

자료: Opulous,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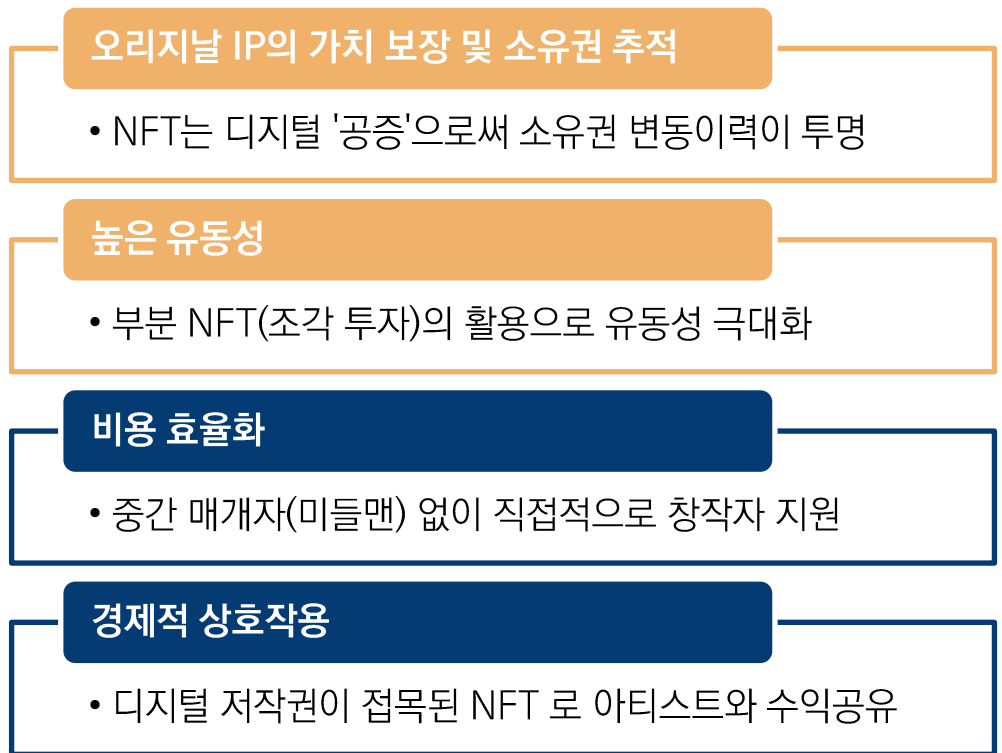
힘찬 미래를 꿈꾸지만 아직은 덜 유명한 인디 뮤지션 입장에서는 NFT로 음원을 발행해서 투자금을 이끌어 낼 수 있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NFT 음원에 오래전에 투자한 오리지널 팬 입장에서도 이 부분 NFT 투자는 좋은 방법이 된다. 내가 투자한 아티스트가 나중에 유명해지면 내가 갖고 있는 NFT 음원 가치는 더욱이 올라갈 테니 말이다. 그러면 내 NFT를 다른 사람에게 높은 값에 판매할 수도 있는 식이다.

따라서, 소비자가 투자자가 되어 아티스트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의 비즈니스 모델이 시장에 제시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소비자들은 음원 NFT의 디지털 로열티를 보유함으로써 Passive Income을 벌어들일 수 있고, 또한, 그 아티스트가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NFT의 오프라인 특전도 얻게 될 것이다. 팬덤 문화가 NFT의 흥행에 큰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점으로 미뤄 볼 때, 향후의 음악과 엔터테인먼트가 활용하게 될 주요 수익모델로 자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NFT의 실용성에 기반한 투자 방식이 현재 업계에 태동하고 있다는 말이다.

또한, 모든 산업에서 그럴겠지만, NFT와 블록체인의 기술 접목으로 중간 매개자 없이 팬과 창작자 사이가 더욱 가까워지는 기술적/문화적/경제적 상호작용이 더욱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새로운 비즈니스 출현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다.

표 9. 향후 예술과 엔터 업계의 NFT 기반 비즈니스 모델에서의 특징점



자료: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다만, 이렇게 '수익 흐름'에 참여하는 형태의 NFT는 투자 성격을 띤다. 그러므로 향후 미국 SEC 라든가 한국의 금융위원회 증선위와 같은 규제기관이 이런 '부분 NFT 혹은 조각투자'를 증권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최종적으로 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결론이 나게 되면 부분 NFT의 발행 등도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게 되면서 제약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점은 유념해야 한다.

* 부분 NFT 혹은 조각투자에 대한 규제 사항은 이후 등장할 챗터에서 다룰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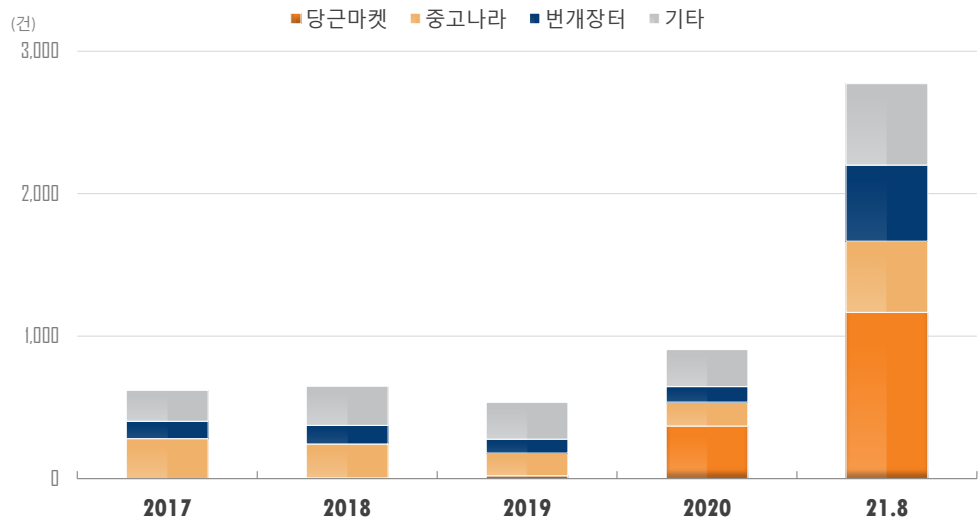
2. NFT를 활용한 의류업계의 ‘진품명품’

저작권 이전을 통한 실용성을 굳이 이야기 하지 않아도, NFT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가지고도 NFT의 사용 가치는 증명될 수 있다. NFT는 본디 디지털 공증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디지털 소유권을 독점적으로 증명하는 기술이다.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 원본 정품임을 인증하려고 할 때 이만한 장치가 없다고도 할 수 있다.

이전까지의 사람 간의 중고 거래는 웬만하면 그냥 믿음으로 가는 것이었지만, 사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중고 사기 사건도 굉장히 많았다. 당근마켓이 훨씬 오래된 플랫폼이었던 중고나라를 역전하여 훨씬 빠르게 기업가치가 올라왔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표 10]**

판매자와 구매자가 서로를 믿기 어렵고 사기도 실제로 너무 많으니까 동네 사람이랑 서로 얼굴을 공개한 상황에서 확실하게 거래를 하고자 하는 시스템이 사용자들에게 공감을 얻은 것이다.

표 10. 온라인 중고거래 분쟁 플랫폼별 현황 추이
당근마켓은 3조원이라는 가장 높은 기업가치를 평가 받은 만큼 외형성장에 따른 개인간 분쟁건수도 가장 많음



자료: 한국인터넷진흥원, 언론보도,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런데 이 블록체인 기술과 NFT라는 개념을 이러한 물품 거래에 활용하면 어떨까?

블록체인은 기본적으로 ‘무신뢰 시스템’을 전제로 하고 있고 위조 및 변조가 사실상 불가능한 데이터 관리 기술이다. NFT는 그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소유권 입증 장치다.

그리고 자연스럽게도 이런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게 바로 명품 업체들이다. 명품 중에 명품으로 꼽히는 브랜드들을 다수 보유한 LVMH 그룹은 2021년 4월 20일에 블록체인 컨소시엄을 만들어 세상에 내놓았다.

그 컨소시엄의 이름은 ‘아우라 블록체인’인데, 이 컨소시엄에는 다른 유명 럭셔리 업체인 프라다와 까르띠에도 참여했다. 거기에다가 구찌를 소유하고 있는 또 다른 거대 명품 그룹인 Kering도 LVMH와 블록체인 파트너십을 맺을 의사를 내비치며, 아우라에 합류하는 것에 대해 논의 중임을 확인했다. Kering까지 마침내 합류하게 되면 ‘아우라’는 거의 모든 유럽 명품 브랜드 업체들의 블록체인을 다루는 메인 네트워크로 자리매김 하게 된다.

그림 15. LVMH가 내놓은 블록체인 컨소시움 '아우라'에 참여한 대표 브랜드들



자료: AURA BLOCKCHAIN CONSORTIUM

이 아우라의 목적은 본인들이 생산하는 모든 상품들에 NFT 기술로써 정품이라는 인증서를 딱딱 발급하는 것이다. 우선, LVMH는 루이비통과 크리스찬 디올 향수의 진품여부를 아우라 플랫폼에서 검증하고, 검증의 효과가 좋다고 하면 다른 명품 브랜드들에도 이 방식을 활용할 계획이다.

그림 16. 명품 업계에서의 블록체인 기술 활용으로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장점들



자료: AURA BLOCKCHAIN CONSORTIUM,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명품에 블록체인, NFT 기술이 접목되는 방식을 좀 더 자세히 기술하자면, 각 상품들은 갖가지 제조 과정에서부터 아우라의 프라이빗 블록체인(퍼블릭 블록체인이 아니다)에 기록되는 고유한 디지털 코드를 부여 받게 된다. 즉, 제작 단계를 거치면서 고유한 NFT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각각의 상품들이 단 하나의 유일한 물건으로써, 메인 네트워크와 연계된다는 말로 확장할 수 있다. 이런 방식을 통해 [그림 16]에서 볼 수 있듯이 해당 제품에 쓰인 원재료부터, 공정 과정, 진품 여부, 소유권 변경 이력까지 모든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다.

전세계에서 온라인으로만 거래되는 위조 명품의 거래금액이 1,000조원대에 육박할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명품 브랜드 입장에서는 아주 유용하고 실용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NFT의 특전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오프라인 행사 초대, 한정품 판매 권리부여 같은 것도 접목할 수 있다. 이런 점들에서 명품 업체들이 NFT 기술에 대해 접근하려는 근거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다만, 아우라의 블록체인은 한계점도 있는데 바로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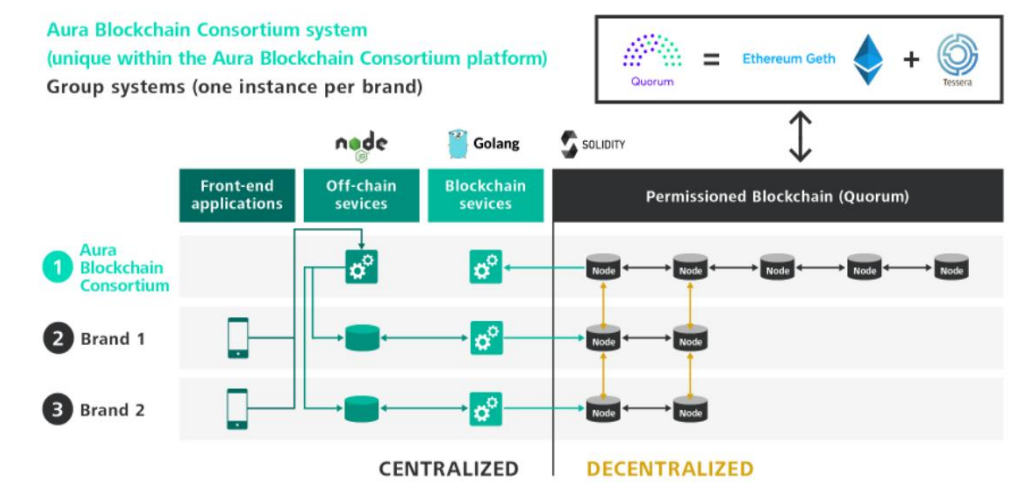
[그림 17]을 참고하면, Quorum이라고 불리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유통되는 데이터들은 해당 네트워크를 관장하는 특정 브랜드만이 전체적인 접근/제어 권한을 갖게 된다. 즉, 컨소시움에 참여하는 각 브랜드들의 고객 데이터는 각 브랜드에서만 액세스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컨소시움 내 다른 브랜드들과는 고객 데이터가 공유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물론, 고객들도 각 브랜드가 액세스 권한을 부여한 데이터 항목들만 볼 수 있다. **[그림 17]**에 따르면 각 브랜드들이 내놓는 고객용 어플리케이션(Front-end application)을 통해서만 본인들의 NFT를 활용해야 하는 방식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 것은 탈중앙화된 방식이나, 이 데이터를 고객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는 브랜드들이 권한을 독점하는 중앙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완전한 오픈 소스 방식은 아니기 때문에 대중에게 완전한 투명성을 허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명품 업계에서 고객 데이터를 ‘특히’ 소중하게 여기기 위한 교육자책으로 이를 고안했다고 이해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중앙화된 방식이 사실 기술의 대중화를 앞당기기도 한다. (우리가 주로 코인을 거래하는 곳이 중앙 거래소임을 떠올리면 된다)

또한, 퍼블릭 블록체인 프로토콜과 다르게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많은 에너지 소비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ESG의 가치인 지속가능성을 뒷받침 한다는 점에서 장점도 있을 것이다.

그림 17. 아우라 블록체인의 개략적인 구조



자료: AURA BLOCKCHAIN CONSORTIUM

다시 한 번 강조를 하자면, NFT 기술로써 나의 디지털 소유권이 오롯이 인정받을 수 있다. 그리고 나는 그 소유권을 온라인 세상에서도 온전히 팔 수도 있다. 바로 이것은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강조된 ‘재화의 소유와 거래’와 연관되는 점이기도 하다. 자본주의의 발전 핵심인 ‘사적 소유권’은 디지털 세상에서는 NFT로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사실 이 분야에서 빠지지 않는 기업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나이키다. NFT의 소유권 거래를 중고거래에 접목을 시켜본다면, 나이키가 왜 이 분야에 진심인지 단 번에 알 수 있다. 나이키가 내놓는 운동화들은 출시 이후 희소성에 따라서 가격이 일억원이 넘게 호가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런데, 나이키는 무단 복제품이 너무 많아 회사 수익과 브랜드 가치에 부정적이라고 경영진이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바로 이런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이키는 NFT 기술에 손을 댄 것이다. NFT를 이용하면 오프라인에서도 중고명품들을 사고 팔면서 진품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3년 전인 2019년 12월 10일, 나이키는 동사의 운동화에 대한 정보를 NFT로 만드는 특허를 출시했다. 관련 기술을 적용한 상품에 대해서는 ‘크립토킱스(Cryptokicks)’라는 브랜드 네임이 붙는다. 미국 특허청(USPTO)에 공개된 특허 내용을 들여다 보면, 해당 신발을 최초로 구매할 때 이 신발에 해당하는 고유한 NFT도 함께 받는 형태라는 점이다. 이 NFT를 통해서 운동화의 ‘소유권을 추적’하고 또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 NFT는 일종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저장해서 관리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당연히 저장되어 있는 이 권리, 즉 NFT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가 있다는 점이 ‘정품 인증과 소유권의 거래’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이키 중고 운동화를 거래할 때 신발을 구매자에게 넘기면서 연계된 NFT도 같이 양도를 해야 비로소 거래가 완성되는 시대가 도래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된다.

그림 18. 미국 특허청(USPTO)에 공개된 나이키의 NFT 기술 특허 내용
실물 운동화에 해당하는 고유한 NFT도 함께 발급받아 앱에 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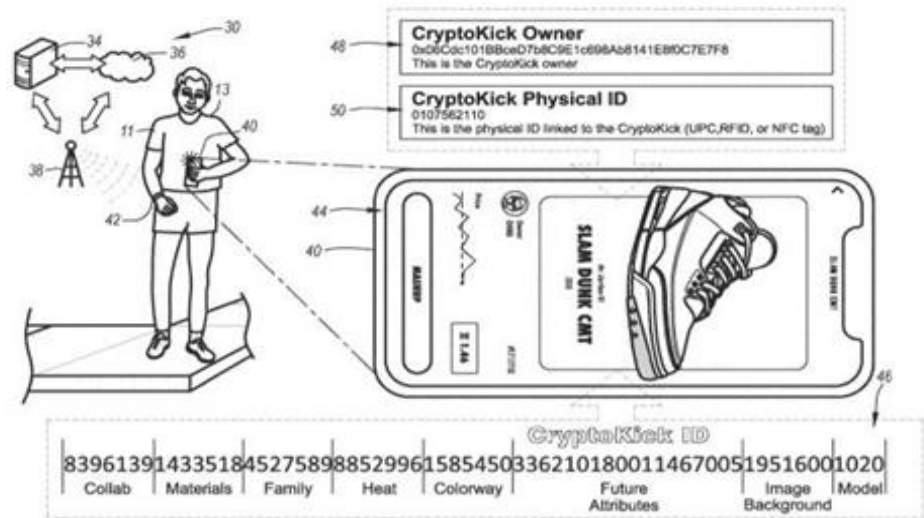


FIG. 2

자료: Nike

한편, 나이키는 NFT에 가장 진심인 의류 업체이기도 하다. 단순히 실물 세계에서 상품 거래만을 위해 NFT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메타버스 세계에서도 본인들의 NFT를 출시했다는 점이 흥미롭다. 메타버스 세계에서 사적소유권을 증명하는 장치가 NFT이니만큼, NFT를 진정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홈그라운드인 결국 메타버스 세상이다.

이런 측면에서, 나이키는 2021년 12월 NFT 패션계의 대세 스타트업인 RTFKT(아티팩트로 발음)을 인수했다. 아티팩트는 2020년 1월에 설립된 가상공간을 위한 패션 전문 플랫폼으로, 이들의 대표적인 상품은 다름 아닌 3D 가상 운동화이다. 그러니까 NFT 기술을 활용해서 특이한 3D 스니커즈를 한정된 수량만을 판매하면서 많은 관심을 이끌어낸 NFT 프로젝트 스타트업이라 할 수 있다.

아디다스가 BAYC와 함께 ‘Into the Metaverse’라는 NFT 프로젝트를 함께 하며 메타버스 세상 안에서의 본인들의 영향력을 높이고 있는 만큼 나이키도 이와 비슷한 행보라고 보면 된다. NFT 아이템을 활용할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으로써, 아디다스가 더샌드박스라는 NFT 게임을 선택했다면 나이키는 로블록스를 선택했다. 이 로블록스에서 나이키는 ‘나이키랜드’라는 콘텐츠를 출시하여 게임 안에서 본인들의 NFT 상품 등을 구매해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성을 대중에게 선보이고 있다.

즉, 현실세계에서든 메타버스에서든 단순히 NFT를 사서 개인만족에 그칠 것이 아니라 거래 상품으로서 쓰일 수 있게 하는 실용성 있는 NFT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실용성이 기반된 NFT라야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로 성장할 수 있다고 필자는 확신한다.

그림 19. 나이키의 RTFKT(아티팩트) 인수, ‘READY PLAYER ME’ NFT 기술을 활용하여 메타버스 속 브랜드 영향력 높이기



자료: Nike Rtfkt

그림 20. 나이키와 Rfkt(아티팩트)가 올해 4월에 출시한 첫번째 디지털 운동화 ‘Nike Cryptokicks’ OpenSea에서 현재 판매 중인 가운데, 일부 신발은 ‘10만 달러’ 이상에 팔림



자료: Nike Rtfkt

3. NFT의 ‘증권화’와 ‘조각 투자’

지금으로부터 10년 정도 후의 미래를 예측해 보자면, NFT의 가장 일반적인 용도는 디지털아트와는 관련이 크게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도 아주 높은 확률로 말이다. 10년이라는 긴 시간도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대부분의 사람은 아직 NFT가 낼 수 있는 잠재력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NFT가 내포하고 있는 그 가능성 정도는 지금도 엿볼 수 있는데, 필자는 그 중에서도 NFT가 물리적인 재화와 지적재산권의 토큰화를 할 때에 주요 사용처로 쓰일 것이라 생각한다.

희귀하고 비싼 골동품과 수집품, 즉 클래식 자동차나 와인 컬렉션 같은 것들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자 할 때 담보로 설정할 수가 없는 물건이다. 저작권과 특허 및 상표 같은 지적재산권에 속하는 무형자산들도 담보로 설정하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와 같은 유형의 자산들은 쉽게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산의 성격 자체가 굉장히 비유동적이고 또한 큰 자본의 투자금액이 집행되어야 하며,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해줄 수 있는 전문 중개인이 또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만큼 벨류에이션에 대한 비시장성 때문에 낮은 가격 투명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도 단점이라 할 수 있다.

가치는 높지만 막상 거래하기는 힘든 이런 고유의 자산들을 우리는 담보불가능 자산이라고 부를 수 있다. 위에서 보듯 이런 담보불가능 자산의 특성은 문서화된 거래 데이터의 부재 가능성, 낮은 거래 신뢰도, 낮은 가격 투명성, 높은 거래 비용, 그리고 극히 낮은 유동성이다.

** 컨설팅 기관인 엑센추어가 추산하기로 전세계적으로 78조 달러에 달하는 담보불가능자산이 존재*

하지만, NFT를 평가할 때 주요 요소 중 하나로 유동성이라는 개념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는가?

이 세상에 있는 물건들은 고유한 물건이지만 한다면 그것의 디지털 소유권을 만들어 입증시킬 수 있는 장치가 NFT라고 우리는 알고 있다. 이 디지털 소유권을 그렇다면 투자처로써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출발한 것이다.

NFT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토큰화’를 하게 되면 어떠한 자산을 부분적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부분 NFT 를 활용한다면, 소유할 수 있는 구매자가 늘어난다는 것이고 거래가 활발해질 수 있도록 거래수단화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전통적인 담보불가능자산들에도 유동성을 만들어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담보불가능 자산의 소유권 쪼개기는 바로 ‘부분 NFT(Fractional NFT)’라는 것으로 가능하다.

그런데, 다름 아닌 한국에서는 이렇게 권리를 분할하여 고유한 창작물에 지원하는 투자가 이미 성행을 하고 있다. 바로 ‘조각 투자’라는 단어로 국내에서는 불린다. 음악, 미술, 올드카, 명품시계 및 와인에 이르기까지 개인이 혼자 투자하기 어려운 고가의 자산을 지분 형태로 나눠 공동 투자하는 개념이다. 개인이 소액으로 접근하기 어려웠던 대체투자 기회를 조각처럼 쪼개서 구매할 수 있다는 것에서 부분 NFT와 그 목적성이 같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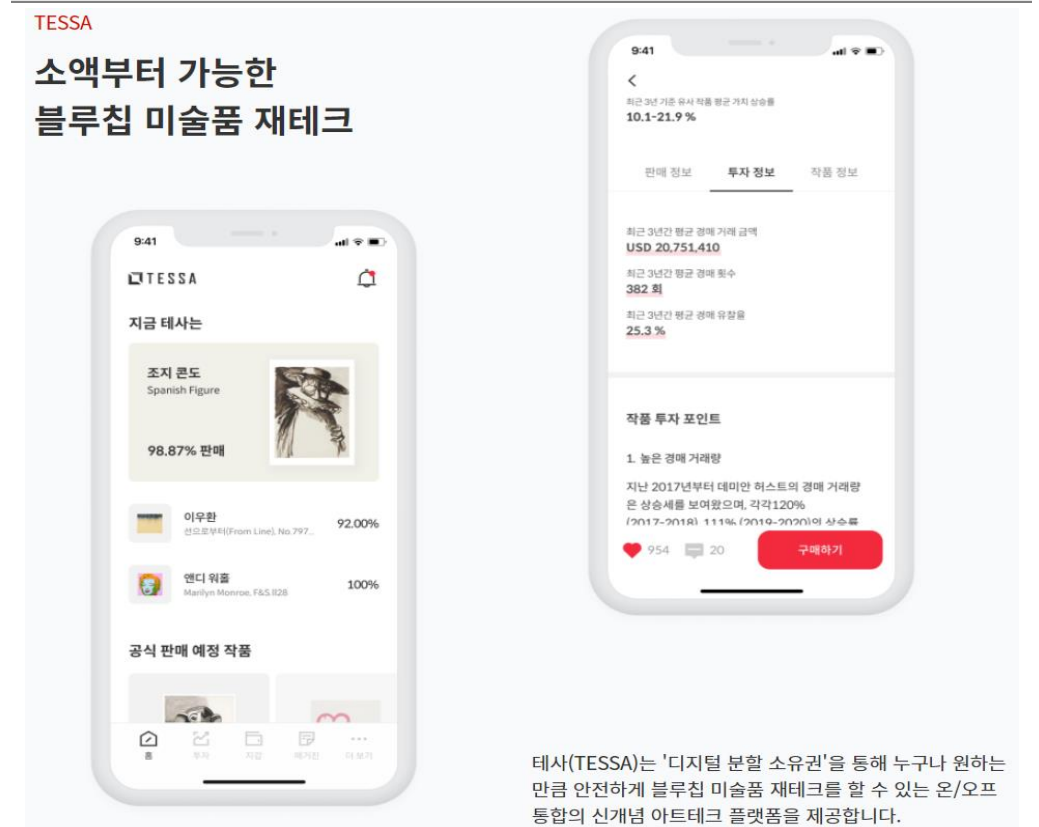
** 조각투자: 고액의 자산(소유권, 채권 등)을 다수의 투자자들이 나눠 갖는 것으로, 소액 투자자가 모여 자산을 공동구매(분할 소유)하는 방식을 뜻함*

‘조각 투자’ 사업을 하고 있는 곳들 중에서는 미술품에 전문화된 ‘테사’와 ‘소투’, 슈퍼카와 비상장 주식의 조각투자에 열중인 ‘트위그’, 명품시계와 와인들에 부분 투자하는 ‘트레저러’ 등이 있다. 이 중 테사에서는 미술 작품에 대한 소유권을 분할해 판매하고 이를 관리하는 업체인데, 그 관리 방법

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특히 필자가 말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분할된 소유권을 인증하고 거래내역을 추적하는 데에는 블록체인 기술이 제격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참고로 이런 조각투자에는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MZ세대 같은 젊은층들이 많이 접근하고 있다. 이들 세대가 조각투자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는 점도 관련 시장의 미래를 비추는 점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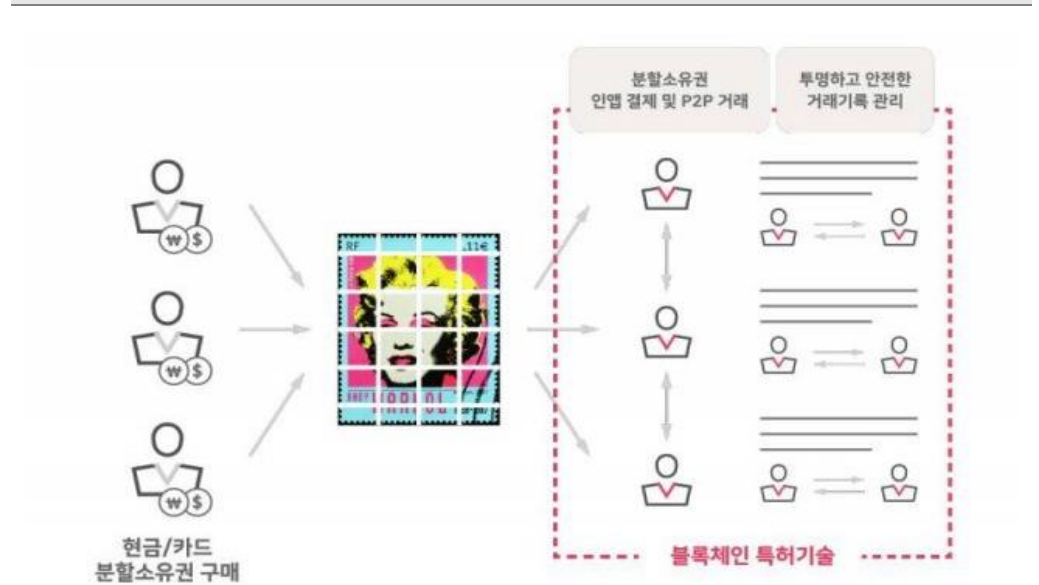
제일 중요한 부분인 EXIT의 경우에는, 구매 이후 투자자들은 저작권료/렌탈수입/매각 후 시세차익 등을 통해서 배당수익과 매매수익을 얻을 수 있는 형태가 된다.

그림 21. 미술품 조각투자 관련 대표업체인 'TESSA'




자료: TESSA

그림 22. TESSA에서의 핵심 구조, '분할소유권 매매와 관리에 블록체인 활용'



자료: TESSA

그림 23. 각종 대체투자 조각투자 관련 대표업체인 'Twig' 비상장 기업인 임파서블 푸즈(대체육 가공업)의 비상장 주식에 대한 조각투자 서비스(조합 명의로 지분 취득)



Twig

함께하는 위대한 투자, Twig

접근하기 힘들었던 해외 비상장 주식, 대체 자산 Twig와 함께 경험해보세요

Impossible Foods
impossiblefoods.com
식품 ECO

임파서블푸드 클럽딜 1호 모집 완료

모인금액 100% 남은시간 참여인원
6억 7,000만 원 **마감됨** **29명 / 49명**

9 번째 출자를 진행하나요 ?
 목표 금액인 6억 7,000만 원 또는 모집 인원 49명이 모이면 출자가 진행됩니다.

참여 가능 금액 최소 1,000만 원 ~ 6,000만 원

자산 가치 \$8.00B ?

주당 가격 \$39.60 ?

서비스 이용료 10만 원


자료: Twig

그림 24. 명품 와인과 시계 조각투자 관련 대표업체인 'Treasurer'

Treasurer. 트레저러 조각모집 조각마켓 매입 인재채용 로그인 | 회원가입

조각 거래
현재 유저들간 조각거래가 가능한 상품들을 살펴보세요


전체상품 보기 트레저러 AI추천 안정적 구매 공격적 구매 조기매각 가능성 장기구매 추천



Rolex
Submariner 126610
RLX0036

1,020 KRW (+2.00%)


마켓 거래 가능



DCLB
2005 Domaine du Comte Liger...
DCLBLR0001

1,055 KRW (+5.50%)


마켓 거래 가능



Rolex
GMT-MASTER II 126710BLNR 'B...
RLX0040

1,000 KRW (+0.00%)


마켓 거래 가능



Rolex
Sea-dweller Steel 126600
RLX0042

1,014 KRW (+1.40%)


마켓 거래 가능



Rolex
Submariner 124060
RLX0033

1,072 KRW (+7.20%)


마켓 거래 가능



Rolex
Yacht-Master II 116681
RLX0043

1,010 KRW (+1.00%)


마켓 거래 가능



Audemars Piguet
Royal Oak 15450ST
AP0001

1,060 KRW (+6.00%)

마켓 거래 가능



Rolex
Submariner White Gold Blue Di...
RLX0034

1,052 KRW (+5.20%)

마켓 거래 가능

자료: Treasurer

또한, 흥미로운 점은 위와 같은 자산뿐만 아니라 역시나 거래 횟수가 많지 않을 값비싼 부동산에도 이런 토큰화를 적용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면 필자가 나중에 한 번만이라도 살아보고 싶은 부동산이 잠실의 롯데월드타워 아파트인데, 이 부동산의 한 호수의 가격은 80억원을 넘게 호가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나는 이 부동산을 갖고 싶은 사람이지만 비싸서 접근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나와 같은 사람이 아마 전국에 수백만명에 육박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 해당 호수의 부동산(NFT 관점에서 고유한 물건이다)의 소유권을 10만분의 1로 쪼개 보면 어떨까? 80억원의 물건을 10만분의 1, 그러니까 0.001%로 나눠보게 되면 하나 당 8만원이 된다. 다시 말해 10만개의 8만원짜리 부분 NFT로 제작을 해보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10만원도 안되는 돈으로 이 부동산의 가치를 일부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십시일반'으로 뭔가 근사한 것을 사는 느낌이라고 표현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다소 비유동적이었던 자산이 순식간에 유동자산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그리고 유동성이 늘어난 만큼 자연스럽게 그 부분 NFT가 어느 정도의 가치인지 시장가격이 형성되고, 그렇게 되면 담보로써 향후에 접목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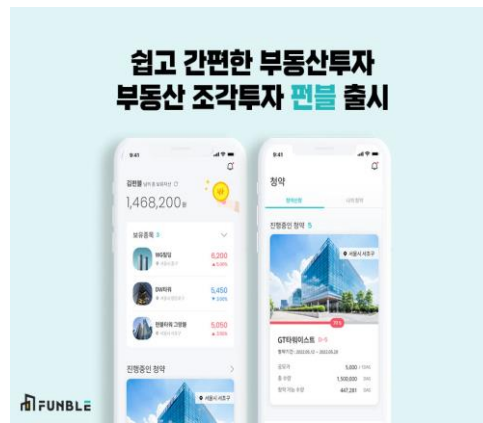
또한 중요한 점은 내가 부분 NFT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는, 기초자산이 되는 해당 부동산의 가치변동에 노출된 투자 포지션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부동산의 일부를 소유하기를 희망하는 시장의 수요가 커질수록 토큰의 가격도 오를 수 있다. 그 이후에 나는 이것을 NFT 마켓플레이스에다가 또 판매하면서 수익을 볼 수 있다.

그렇다. 쉽게 말해서 주식처럼 사고 팔 수도 있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증권의 개념으로 NFT가 변화할 것이다라는 말과 같다. 물론 이렇게 부동산 NFT가 출현하게 되면 전문적으로 부동산 NFT를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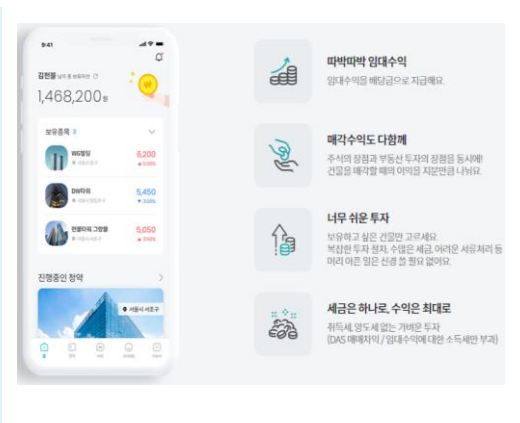
그리고 최근 한국에서 이 부동산 조각투자 사업을 런칭한 곳이 생겨났다. 2022년 5월 9일에 오픈한 '펀블'이라는 곳인데, 이 회사는 2019년 7월에 설립된 기업으로 고가의 상업용 건물을 주식처럼 쪼개 팔 수 있는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이다. 부동산의 소유권을 쪼개서 최소 5천원부터 구입할 수 있다고 하고, 거래 수수료는 0.22%, 일간 매매회전율이 100%로 제한되는 등 마치 주식 거래와 같은 외형을 갖추고 있다.

그림 25.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펀블'의 인터페이스
주식거래 MTS와 유사 / 부동산 청약도 가능

그림 26. 펀블에서 설명하는 수익구조와 세금
임대수익, 매각수익 위한 '수익증권' / 세금은 소득세만



자료: FUNBLE



자료: FUNBLE

다만, 주식이 '지분증권'인 것처럼, 이 조각난 부동산 소유권 또한 증권으로써 취급을 해야 한다. 실제로 펀블에서는 내가 부동산 조각투자를 하게 되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부동산이 벌어들이는 임대수익을 수취할 수 있도록 지분만큼의 배당 권리가 부여된다. 물론 투자 대상 부동산이 매각될 경우 해당 판매에 대한 시세차익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도 지분만큼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곧 부동산 수익증권으로 분류해야 한다. 즉, 각각의 부동산 수익증권에 1:1로 대응하는 디지털 자산증권(DAS)가 발행되고, 투자자는 DAS를 주식처럼 거래하는 식이다.

한편, 실제 부동산을 직접 매매하는 경우 우리는 상당한 액수의 취득세와, 양도세, 그리고 종부세도 감당을 해야 하지만 이런 플랫폼에서는 수익에 대한 소득세만 낸다는 장점도 있다.

이런 조각 투자 시장은 이렇게 투자자들에게도 매력적이기도 하지만, 뿐만 아니라, 사업자 입장에서 초기 투자 비용이 적게 들고, 이 시장이 아직 초기 단계다 보니까 선점하겠다고 나선 투자회사들도 상당부분 있다. SK증권의 경우 2022년 1월 12일 편블과 MOU를 맺고 국내 증권사 최초로 조각투자 사업을 하겠다고 나섰다. 실제로 편블을 실제로 정식으로 이용하려고 하면 SK증권 계좌가 있어야 가능한데, 이는 투자자들의 투자금이 SK증권 계좌에 별도로 예치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해당 구조는 편블의 거래내역이 블록체인으로 관리되는데, 이때 SK증권이 편블의 블록체인 노드로 직접 참여하는 방식에 기인한다.

최근 루나 사태로 인한 가상자산에 대한 여론이 좋지 못한 만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민관의 규제들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비교적 안전한 방법으로써 조각투자 스타트업과 전통적 투자회사간 합작 사업은 이와 같은 형태로 앞으로도 자주 출현하지 않을까 생각되는 대목이다.

표 11. 국내 금융투자회사들의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관련 사업 현황

금융투자회사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관련 내용
미래에셋증권	가상자산 수탁사업 법인설립 검토 * 관련 경력직 채용 공고
NH투자증권	암호화폐, NFT, 블록체인 관련 리서치 인력 강화
한국투자증권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소 '소유' 개발사 '루센트블록'과 MOU * 자산관리 솔루션 공동개발
삼성증권	가상자산 사업자 '코인플러그' 인수 검토 증권형 토큰 발행(STO) 전문이력 채용 진행 등 전문플랫폼 개발 목표
KB증권	암호화폐, NFT, 블록체인 관련 리서치 인력 강화
신한금융투자	그룹차원으로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에 지분투자 NFT 기업 '블록오디세이'에 투자조합을 통해 50억원 투자 자산배분 전략에 디지털 자산 편입
SK증권	부동산 디지털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 '편블'과 MOU * 시스템의 블록체인 노드로 직접참여하는 등 시스템 소과정에 관여
키움증권	부동산 디지털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 '편블'과 MOU 부동산 디지털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 '카사'와 MOU 부동산 디지털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 '비브릭'(세종텔레콤)과 MOU
하나금융투자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소 '소유' 개발사 '루센트블록'과 MOU * 투자 계좌 관리
대신증권	부동산 금융에 가상자산 접목 검토 * 명확한 방향은 제시되지 않았으나 STO 접목 가능성 높음

자료: 언론보도,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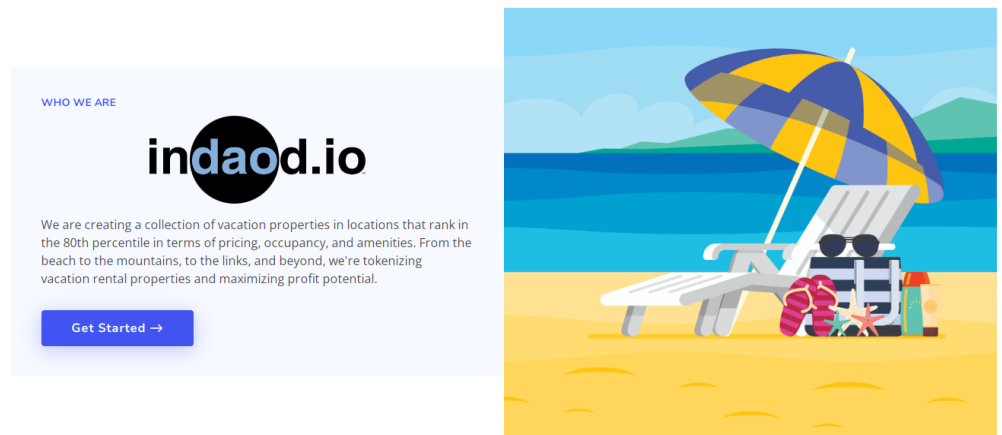
그런데, 사실 부동산을 증권화하여 지분을 여럿 쪼개 판매한다는 개념은 이미 있지 않은가? REITs는 우리에게 그리 특별한 내용은 아니다. 하지만 모든 부동산을 REITs로 만들어 거래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좀 인기가 덜한 건물이라든가, 또 부동산 매매시의 deal size가 어느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말이다. 실제로 REITs로 만들어 자본조달을 하려다가 실패하게 되는 deal도 많다. 더군다나 시중에 나와있는 REITs들은 여러 개의 건물들을 묶어서 투자상품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부동산 조각투자처럼 촘촘한 개별 물건 매매가 어렵다. 반면 위와 같은 부동산 디지털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에서는 투자자 본인이 관심있는 건물만 골라서 투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필자가 예시로 들었던 ‘한 호수의 부동산’의 소유권만을 가지고 REITs로 만들어 판매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일 것이다. 다시 말해 전통적인 수단으로는 불가능하고 대체투자의 대중화를 이끌 수 있게 NFT와 블록체인 시스템이 활용될 수 있다.

그리고, 부분 NFT로 많은 사람이 동시에 이 부동산을 소유한다는 것은 NFT 관점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동일한 토큰을 소유한 ‘탈중앙화 커뮤니티’라고 말이다. 그러니까 NFT 게임 속 DAO처럼 마찬가지로 부동산 부분 NFT도 이와 같이 운영될 것이라는 점이다.

** DAO: 공동된 토큰을 소지한 사람들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발전을 위해 다수결로 의사결정을 하는 커뮤니티. 모든 정책 타진 및 결정, 실행은 미리 약속된 프로토콜을 토대로 운영. 다만, 대표주와 수탁자가 부재한 구조로써, 법률적 지위가 불명확해 현실세계에서 각종 법률과 충돌할 여지*

그림 27. 부동산 토큰화(부분 NFT) 분야의 선구자인 indaod.io의 소개글
휴양지의 실물부동산을 취득하여 토큰화해 DAO 커뮤니티로 만드는 프로젝트(현재 투자자 모집 중)



자료: indaod.io

이 부동산 NFT의 DAO 커뮤니티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현재의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처럼 이해하는 것이 편할 듯싶다. 그러니까 핵심은 공동으로 소유한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서 그 기초 자산을 활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내가 포함되어 있는 DAO에서 서로 공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그냥 놀리는 게 아니라, 여러 수익사업을 하자고 제안할 수도 있다. 이 부동산을 예쁘게 꾸며서 에어비앤비 같은 걸로 임대 사업을 한다면 각종 이벤트 혹은 스튜디오 공간으로 수익을 올리자든가 하는 제안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가지고 부분 NFT 소유자들에게 돈을 지분대로 나눠주면 될 것이다. 아니면 아예 이 부동산 소유권 전체를 (기존 부동산 매매처럼) 다른 이에게 매각하는 것이다. 매각 후 보유 지분에 비례해 커뮤니티원들에게 수익을 각각 정산해주고 해산할 수도 있겠다.

당연히 모든 거래 과정은 블록체인의 스마트 컨트랙트에 따라 집행되니 보안에도 안심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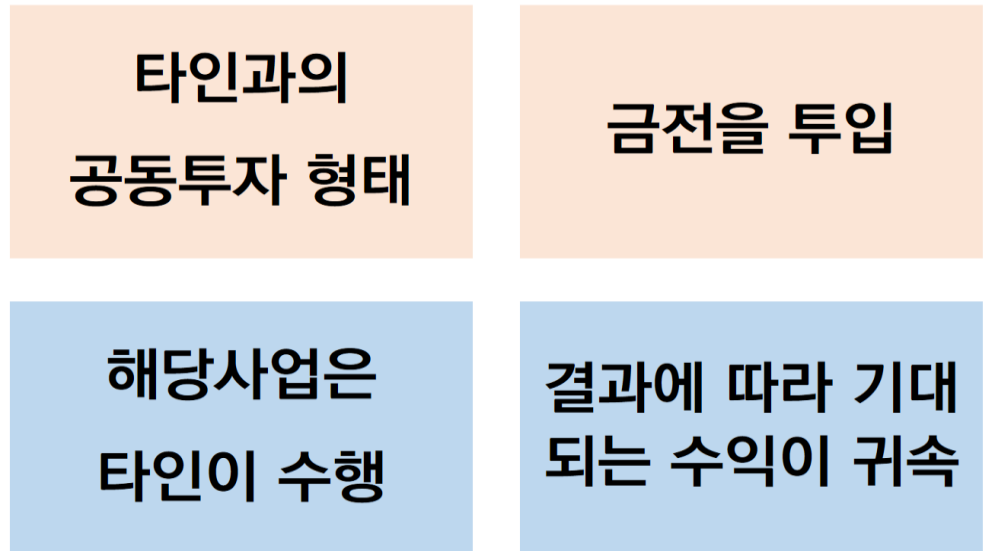
4. 국가 차원의 규제와 제도화

하지만, 조각투자자와 부분 NFT, 그리고 DAO의 활용에 있어 장밋빛 미래만 가득한 것은 절대 아니다. 앞으로 이들이 거래의 한 방식으로써 제대로 구축되기 위해서는 거쳐야 할 사항들이 겹겹이 쌓여 있다. 우선 가장 쉽지 않은 부분은 역시 국가의 규제다. 그리고 최근의 분위기를 감안하면 더욱이 그렇게 보여진다.

해외에서는 이미 가상자산을 금융투자상품으로 보고 제도권의 수면위로 올려놨다. 국내 상황 또한 세계의 이런 지침을 대부분 차용해 따라갈 것이라는 추측이 많다. 가상자산 규제에 가장 앞선 나라로 꼽히는 미국과 유럽의 경우는 가상자산을 ‘증권형’ 가상자산과 ‘비증권형’ 가상자산으로 구분해서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처럼 단순히 화폐로 통용되는 경우(지금은 아니라고 봐야겠지만)에는, 가상자산의 증권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증권형 가상자산: 배당과 이자를 지급하는 회사 지분, 토지의 소유권과 같은 기초자산을 블록체인 기술로써, 디지털 토큰으로 만든 자산

표 12. 투자계약 ‘증권’으로 판단될 수 있는 계약상의 네 가지 사항
 상당부분의 조각투자자가 이 네 가지 사항을 충족하기 때문에, 증권으로 향후 판단가능



자료: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그런데 문제는 가상자산이 ‘증권형’으로 분류되는 경우다. 미국과 유럽 규제당국에서는 모두 증권형 가상자산에는 엄격한 법규를 들이대지만, 비증권형에는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를 별도로 적용하기 때문이다. 증권형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증권법으로 규제하여 증권신고서 등록이 필수적이다. 반면 비증권형 가상자산은 다른 법률로써 규제를 실시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상품거래법, 유럽은 MiCA(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 2024년부터 시행) 법안인데, 시세조종이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같은 불공정거래가 규제 대상이라 증권형보다는 규제가 덜 강력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2022년 5월 11일, 대한민국의 새 정부는 ‘국정과제 이행계획서’ 잠정본을 발표하며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디지털자산 생태계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여기에는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디지털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NFT 등의 디지털자산의 발행과 주요 규제들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이 기본법을 올해까지 마련한 다음에 2023년에 국회에 통과시키고 2024년에는 시행령을 마련하겠다고도 포부를 밝혔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대한 이야기는 원래 있었지만 연차별로 이렇게 액션플랜들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라는 점이 주목할 만 하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가상자산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서 증권형과 비증권형, 이렇게 나눠서 규제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미국과 유럽의 경우와 유사하다고 보이는 부분인데, 각국의 규제 체계 동향을 역시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새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비춰볼 때 증권형 가상자산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개정이 필요) 아래 운영토록 하는 것이다. 증권형 가상자산은 STO(Securities Token Offering)라는 개념이 핵심이다. 이 STO는 ‘조각투자를 위한 토큰’ 같은 개념이다. 즉, 부동산과 같이 유동화가 쉽지 않은 실물자산 등을 분할 투자가 가능하도록 토큰으로 만든 것이다.

그런데 STO라는 개념은 그 자체로서는 새로운 것은 아니다. 다만 가상자산으로서 다시 대두가 된 이유는 바로 여기에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기존의 STO에서는 토큰이라는 게 위변조 위험을 내포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이를 막기 위한 기술적 검토와 리스크 자체적으로 대비를 해야 했다. 그래서 오히려 비용과 리스크 때문에 STO가 크게 확산되지 않았던 것이지만, 위변조 위험을 없애버리는 NFT 기술이 접목됨으로써 상황은 변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전에 살펴봤던 ‘펀블’과 같이 디지털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들의 경우에도 블록체인을 통해 STO의 새로운 흥행 가능성을 선보였으니 증권사들의 파트너십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본다.

표 13. 새 정부의 가상자산 관련 정책 사항

	증권형 가상자산	비증권형 가상자산
분류기준	부동산, 수집품, IP 등의 자산을 담보로 하는,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될 수 있는 토큰으로 발행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고 담보자산이 없는 지불형/유틸리티토큰에 해당
발행방식 관련 정책	증권형토큰발행(STO)	ICO의 단계적 허용 * IEO부터 허용한 뒤 단계적 확대
정책 계획	자본시장법 개정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 올해까지 마련하고 내년에 제정
해외동향	미국: 증권법 적용 유럽: 증권법 적용	미국: 상품거래법 적용 유럽: MiCA법, 2024년에 시행 예정

자료: 언론 보도, 정치권,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반면, 비증권형 가상자산은, 여러 가상자산 관련 법안들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데, 이를 디지털 자산 기본법의 제정을 통해서 체계적인 제도화에 나설 예정이다. 비증권형 가상자산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국내에서 코인발행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었다. 이미 후보자 시절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했던 관련 공약 중 ICO(Initial Coin Offering)를 허용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연장선으로 지난 5월 3일에 관련내용이 구체화됐다. 투자자 보호장치가 있는 IEO(Initial Exchange Offering)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ICO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국내에서 ICO가 인정되게 되면 국내 기업들은 코인 발행을 하기 위해 굳이 해외에다가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관련 산업 육성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된다. 블록체인 기술을 안고 있는 NFT와 코인생태계라는 것은 서로 떨어야 할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방침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ICO, IEO와 마찬가지로 업계에서 가장 촉각을 곤두세운 분야가 바로 NFT의 가상자산 편입 여부였다. ‘NFT가 가상자산으로 인정될까’, ‘증권과 같이 규제가 될까’ 같은 궁금증들이었다.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할 경우 NFT 발행인에 대한 규제가 발생하고, NFT 관련한 거래 행위도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일명 특금법)상 각종 의무를 질 수 밖에 없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기본적으로 NFT가 가상자산의 범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지불과 투자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 범위에 포함될 수도 있다고 하면서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이처럼 전세계적으로 봐도 NFT 시장이 급성장은 했지만 관련 법적 제도와 규제는 미비한 상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아직 NFT를 가상자산으로 직접 지정한 경우는 없는데, 이는 각각의 NFT의 법적 성격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단일 법령으로 규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현재 NFT 규제 여부도 고려중이기는 하다.

표 14. 주요 국가들의 NFT 규제 동향

해당국가 및 기관	NFT 규제 관련 언급 및 동향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FT 는 기본적으로 가상자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지불 및 투자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가상자산의 범위에 포함 가능 - 성격과 실질적 기능을 고려해 각국이 개별사안에 따라 규제
미국 SE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에 이익을 낼 것으로 기대되는 NFT를 거래하는 경우 이를 투자계약으로 간주해 일부 NFT는 증권법 적용 가능성
유럽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iCA 법안이 시행되는 24년부터 유럽연합 전체 회원국은 가상 자산에 대한 단일 규제체계를 갖추게 되었음 - 다만, MiCA는 스테이블 코인, 유틸리티 토큰 등 모든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규제를 내용으로 하면서도 NFT 규제 내용은 제외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FT를 규정하는 특별한 법은 없지만, 가상자산을 현금으로 바꾸는 행위 등은 규제받을 가능성 존재 - 영국 정부차원에서 올해 자체 NFT를 발행할 계획 발표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FT를 직접 규제하는 법은 없고, NFT는 대체불가능이라는 특성상 지불기능이 없어 가상자산으로서 규제되지 않고 있음 - 최근 도박범죄로 NFT가 사용될 수 있다는 의견들이 제기돼 일본 블록체인 콘텐츠 협회 등이 NFT 관련 가이드라인 수립중

자료: 자본시장연구원,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국내에서도 NFT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물론이고 당연히 관련 규제도 없었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 계획 내용을 들여다 보면, NFT들 중 일부는 반드시 가상자산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관련 법안 제정을 위해서 마련 중이기는 하나,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NFT 관련 내용을 포함할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기본법의 법률통과가 너무 늦어진다 싶으면 NFT에 대해서는 특금법에 따라 규제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라 그만큼 정부의 의지는 강하다고 볼 수 있다.

NFT가 가상자산이 맞느냐 아니냐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상자산의 정의부터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한다. FATF가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가상자산이 되기 위해서는 자산이 (가)디지털이어야 하고, (나)고유한 가치(단순히 다른 것의 소유권을 기록하거나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다)거래 또는 양도할 수 있고, (라)지불 또는 투자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가)와 (다)는 모든 NFT가 충족하지만, (나)와 (라)는 개별 NFT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애매모호함을 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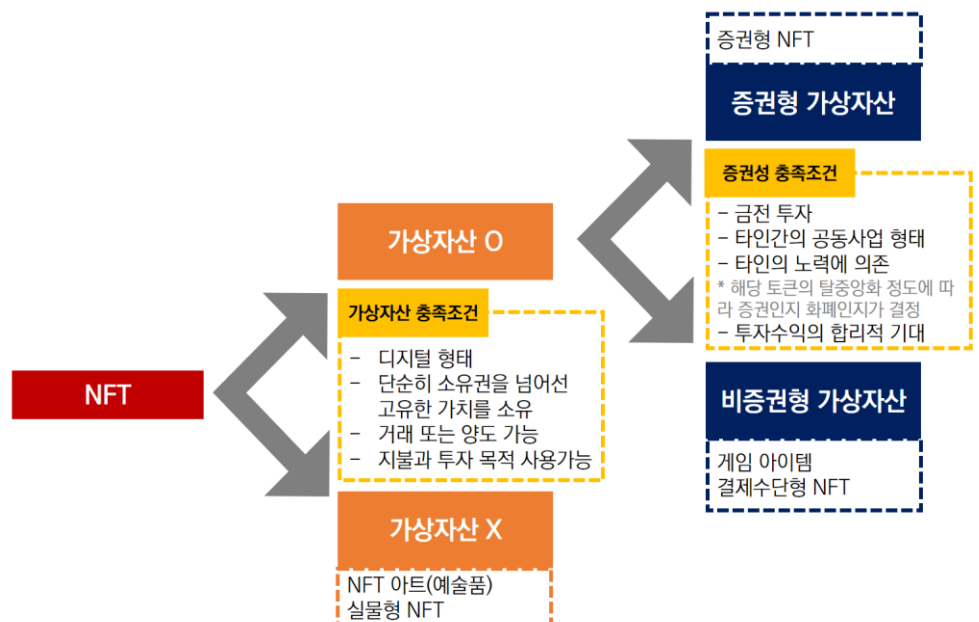
결국, NFT의 성격과 그 실질적 기능을 고려해서 한국을 포함한 각국이 개별사안에 따라 규제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그 실질적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NFT에 대한 분류 작업도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와 관련해 한국금융연구원에서는 2021년 12월 연구용역보고서에서, NFT에 대해서 분류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발행 형태에 따라서 ①게임 아이템 ②NFT 아트(예술품) ③증권형 NFT ④결제수단형 NFT ⑤실물형 NFT 등 다섯 종류로 구분했다.

이때 금융연구원에서는 ②NFT 아트와 ⑤실물형 NFT의 경우 결제수단이나 투자대상으로 접근되는 것이 아닌 경우가 많아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하지만, ①게임 아이템과 ④결제수단형 NFT의 경우 특금법을 적용해 가상자산의 정의를 충족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필자가 다뤘던 NFT 게임인 더샌드박스의 가상부동산 LAND를 떠올려보면 이해가 될 것이다. 이 디지털 부동산 NFT는 소유권 그 이상의 가치로써, 투자 및 수익 목적으로 접근하는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물론 ③증권형 NFT는 말그대로 '증권형 가상자산'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부분 NFT 또한 최종적으로 국내에서도 증권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STO의 개념으로 자본시장법 아래 영향을 받을 것이란 얘기다.

관련해서 중요한 이슈가 있었다. 지난 4월 20일, 음악 저작권 거래 플랫폼인 '뮤직카우'가 증권업에 해당한다고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가 판단했는데, 뮤직카우가 발행한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뮤직카우 같은 조각투자 플랫폼의 STO가 증권으로 규정되고, 뮤직카우는 자본시장법의 규제 테두리 안에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향후에, 금융당국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다.

표 15.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와 한국금융연구원의 분류기준으로 살펴 본 NFT의 제도권 영역 편입시 경로



자료: 금융연구원, FATF,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즉, 앞으로는 위 분류기준에 맞춰서 규제 사항을 적용하기 위해 개별 NFT가 어디에 속하는지에 대한 제도화 작업들이 속속들이 출현할 것이라고 본다. 최근 기획재정부 예산실에서도 NFT 활성화 방안에 대한 현황 파악 등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NFT가 가상자산으로서 편입이 된다고 하면, 우후죽순 생겨난 NFT 관련 업체들은 발행인에 대한 공시 의무와 같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방식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인가’를 받아야 한다. 금융당국의 신고 수리 없이는 합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에, NFT 기업들의 옥석 가리기는 앞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기획재정부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과세는 하되 보호는 안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이제 상황이 변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규제가 생기는 것은 산업 발전에 리스크 요인이기도 하지만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을 규정해 이에 맞춰 제도화 시키는 것은 오히려 긍정적이라고 할 수도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인 ‘혁신금융서비스’ 제도를 통해서 STO 관련 스타트업 몇 곳만 제한적으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사업을 하고 있다. (2021년 말 기준 3 곳)

그런데 규제 샌드박스라는 것 자체가 기존의 제도로는 신속한 대응이 곤란하기에 도입된 것이다. 또한, 이런 특례제도에 지정되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실 높은 진입장벽이 있기 때문에 진정한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자유롭게 뛰어노는 모래사장 놀이터처럼 신기술과 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내놔서 때 일정기간 또는 일정지역내에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2016년 영국에서 처음 도입.

* 혁신금융서비스 제도: 일종의 금융계의 규제 샌드박스. 기존 금융서비스와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서비스에 대해 규제 적용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 지정신청은 한국핀테크지원센터 같은 혁신금융사업자가 하고, 지정권한은 금융위원회에게 있음. 다만, 금융기관 및 신탁사와 같은 스폰서가 있어야만 지정될 수 있기에 해당 서비스는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한다는 한계

그러므로, 기존의 제도를 환경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더 나은 솔루션이 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봤듯이 법이 제정되어 STO와 같은 증권형 가상자산을 제도권에 편입하게 되면 관련 산업은 굳이 이런 임시 방편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관련 시장이 체계화 하며 클 수 있다. 당연하게도 STO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NFT의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도 생긴다. STO로써 기초자산들을 토큰화할 때, NFT와 블록체인 기술이 접목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가상자산이 제도화가 되면, 그 주관부처는 금융위원회가 될 것이다. 실제로 지난 5월 17일에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이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STO 조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처음으로 증권형 가상자산에 대한 직접 조사가 단행된 것이다. 그간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취해왔던 것과는 대조적인 면이다. 아울러 최근 ‘루나 사태’를 계기로 새 정부의 해당정책 기조는 더욱 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즉, 이제 가상자산에도 금융당국이 확실히 나선다는 말이고 이는 가상자산이 제도권 영역에 들어왔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다만, 지난 1월 20일 ‘가상자산 컨퍼런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가상자산 시장에서만큼은 규제 걱정 없도록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집행할 것이라고 발언했던 점이 새삼 기억이 난다. 이를 감안하면, 규제보다는 진흥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기대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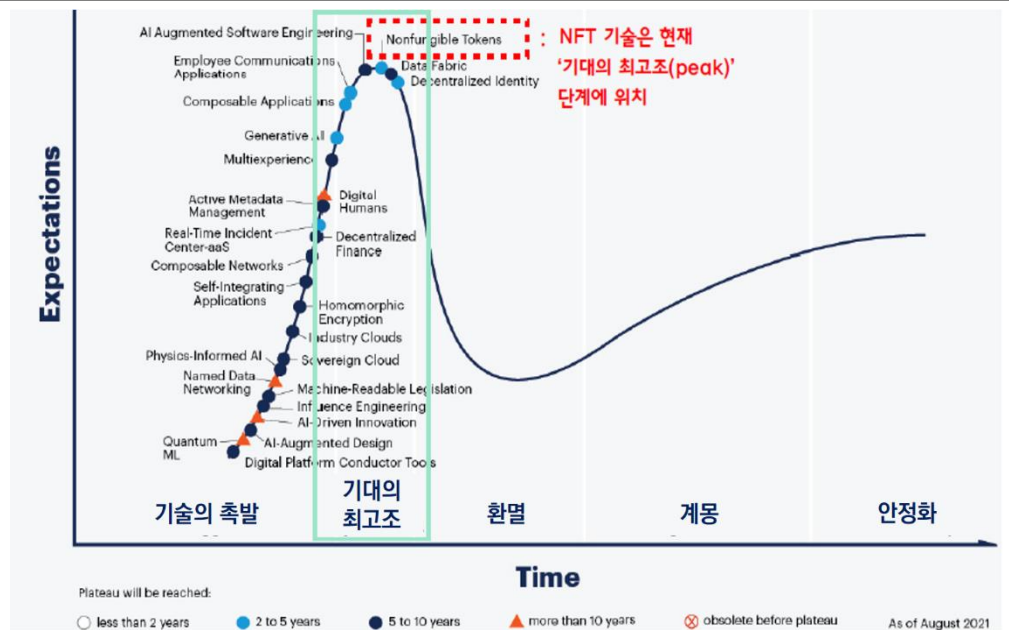
NFT가 가질 잠재력

1. NFT 도입은 이제 시작

NFT에 대한 거품논란, 관련 기술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몇 개월 간 이어지고 있는 암호화폐를 포함한 위험자산 가격의 큰 하락으로 인해 이런 부정적 시각은 더욱 힘을 얻고 있다. 특히 NFT는 작년 한 해 동안 엄청난 관심을 받았고, 그만큼 올해에는 하락의 골도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원색적인 조롱까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앞서 말했듯이 NFT의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지만 NFT에 대한 비판은 당연한 것 같기도 하다. NFT를 둘러싼 언론들의 헤드라인은 온통 어떤 그림이 몇십억에 팔렸다더라 이런 얘기들로만 가득 채웠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과거 17세기의 튜립 버블처럼 NFT 유행도 꺼지다 말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내 인생이랑은 딱히 관련 없을 거라고 생각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도 수긍이 간다.

표 16. 가트너가 선정한 향후 2~10년 간 글로벌 경제,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칠 유망기술
 작년 8월 기준, NFT 기술은 '기대의 최고조' 단계에 이르러 '과잉 기대'를 받고, 현재는 '환멸' 단계가 명백



자료: Gartner, 국회입법조사처
 기준시점: 2021년 8월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NFT라는 게 대중에 소개된지 이제야 1년도 채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만큼 혼란과 변동성이 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NFT가 출현한 직후 우리는 이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아직은 준비도 하지 못했으니 당연한 일이다. 대신에 기술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말하기 보다는 NFT가 얼마에 팔렸는지에 대해 듣는 것이 더욱 자극적이고 재밌기도 했으니 말이다.

다만, NFT가 대중들의 입에 오르고 내린지가 사실 1년도 되지 않아 이렇게 크게 알려졌다는 것은, 그만큼 NFT의 가능성을 깨달은 사람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작년에 비싼 값에 팔린 NFT들 경우에는, 이 NFT들의 가치는 주로 희소성과 일반 개개인의 만족도에서 찾을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는 점이다. 더 이상 희소성과 개인의 만족도로 이뤄진 'HYPE'만 가지고 계속해서 시장을 떠받들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약세장에서는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예민해질 수 밖에 없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앞으로 10년 뒤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NFT의 일반적인 용도가 절대 디지털 그림 같은 것을 사는 데에서만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미 수많은 NFT 아트의 가격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크게 하락했다. 책도시가 트위터에 본인이 남긴 첫 트윗 NFT는 36억원을 호가하던 것이 최근 30만원 초반대까지 떨어졌다. 이미 '디지털 그림에 NFT가 묻었다'라는 이유 정도로 고가에 사들이는 행태에는 시장의 흥미가 완전히 떨어졌다는 말과도 같다.

이제는 자산에 대한 일종의 권리들을 입증하는, 즉, 실용적인 용도에 입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결국, 대부분의 투자자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NFT를 가지고 이걸 어디다가 사용할 수 있을지' 혹은 '내가 이것을 갖고 있어야 하는 이유가 명확한지'와 같은 실용성이 높아져야 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기업들의 NFT 러시가 좀 더 실용성에 초점을 맞춰서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실용성이라는 건 NFT를 샀을 때 단지 소유권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더욱이 경제적 이권을 차지할 수 있는 형태로 NFT가 진화하며 발생할 것이다. 즉, NFT를 보유함으로써, 저작권까지 가져와서 2차 창작이 가능한 프로슈머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그리고 해당 기초자산의 수익흐름까지 내 지분만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또한 추후의 온/오프라인 NFT 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는, 마지막으로 쉽게 EXIT을 할 수 있도록 유동성이 풍부한 STO 플랫폼으로써 '증권'의 역할도 내포하는, 이와 같은 흐름으로 NFT가 전개될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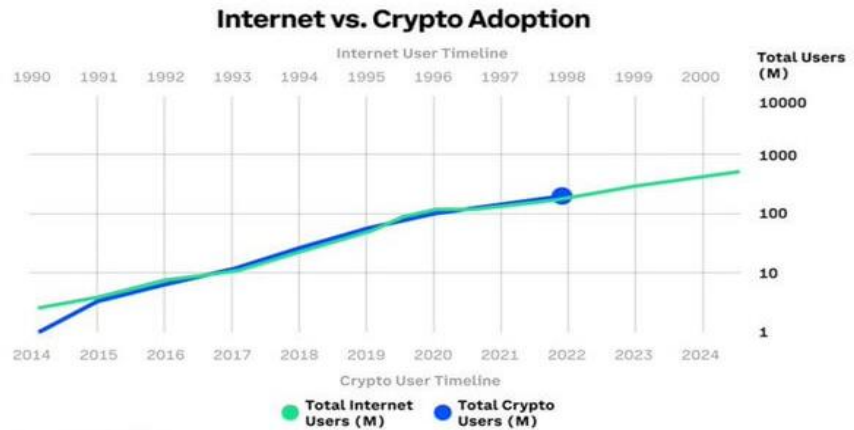
물론 여기서 저작권을 둘러싼 법적 논쟁과 증권 관련 규제는 풀기 힘든 숙제다. 다시 말해, 이런 올바른 진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 국가 차원의 규제와 육성 정책일 것이다. 새 정부가 당초에 밝힌 스탠스대로, 규제보다는 진흥에 방점이 찍혀서 한국의 NFT가 제도권 하에서 잘 발전하게 된다면, 일상생활에서 NFT를 접하는 계기가 생각보다 많아질 수 있을 것 같다.

뿐만 아니라, NFT라는 장치는 앞으로 인류가 점차 메타버스라는 국경 없는 새로운 생태계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소유권 증명 장치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깊다. 가상세계에서도 땅과 여러 자산에 대한 소유권 증빙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NFT는 디지털 공증의 형태로 등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이제 우리는 알고 있다.

따라서, NFT라는 것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영역에서 모두 유틸리티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과 네트워크가 인터넷처럼 일종의 기반(Foundation)이라면 NFT는 이 기반이 대중에게 와 닿게 할 대중화를 이끌 가능성이라는 것을 필자는 피력하고 싶다.

인터넷이라는 기술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효과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검색엔진이라는 훌륭한 툴 덕분이었다. 그리고 필자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대중들로 하여금 의미 있고 실용적인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장치가 NFT라고 믿고 있다.

표 17. 인터넷과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유저숫자 추이 비교
Adoption rate에 있어서 약 24년의 시차를 가지며 동행성을 보임



자료: Worldbank, Crypto.com
 기준시점: 2021년 12월

따라서, 지금은 대중들이 생각하기에 NFT라는 것이 나랑은 관련 없어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는 시점이지만,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리스크를 기꺼이 감수하는 모험가들을 통해서 NFT는 계속 진화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잘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NFT와 블록체인, 그리고 메타버스 기술과 자산의 등장은 새로운 시장과 비즈니스를 만들어 낼 것이다. 그리고 이런 변화를 빠르게 포착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기업은 새로운 시장의 강자로 성장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